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12호 【루계 제25621호】 주체106(2017)년 4월 22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축 하 전 문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4.5갱 고경찬영웅소대 동지들에게

나는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조선로동계급의 억센 기상과 투지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년간광물생산계획을 101.5%로 완수하는 놀라운 기적적성과를 이룩한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4.5갱 고경찬영웅소대 15명 동지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난 금골의 영웅광부들답게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에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분수령을 마련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에 화답하여 뜻깊은 광명성절과 태양절,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기념일을 계기로 광물생산고지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불꽃튀는 증산돌격전을 과감히 전개하였습니다.

지하 800m 깊이의 막장에 당앞에 결의한 전투목표를 게시해놓고 천하제일강국의 광명한 래일을 내다보며 맹렬한 백열전을 벌린 동지들의 집단적혁신은 제국주의반동들이 발악할수록 자력자강의 배심든든히 만리마속도로 내닫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불굴의 기상과 불가항력적위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경제강국건설의 전초선에서 난관을 박차고 용감하게 돌진하고있는 고경찬영웅소대의 혁혁한 전과보고에서 커다란 힘과 고무를 받았습니다.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맏아들인 영웅적로동계급이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과 혁명적동지애로 뭉치고 과학기술과 경쟁열풍의 힘으로 다발적이며 련발적인 승전포성을 울리고있기에 적대세력들의 횡포무도한 초강경위협과 야만적인 제재책동은 아무런 맥을 추지 못하고있으며 세상을 놀래우는 만리마대진군은 더욱 고조되고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장군님과 맺은 정을 피줄처럼 간직하고 당중앙과 심장의 맥동을 같이하며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한 고경찬영웅소대를 높이 평가하며 전투원들의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을 힘껏 떠밀어준 가족소대원들과 광산의 일군들에게도 감사를 보냅니다.

우리 당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일편단심 백옥같은 충정으로 당과 수령을 받드는 위대한 인민의 정신력을 믿고있으며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창조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고있습니다.

고경찬영웅소대 전투원동지들은 순간도 멈춤없이 더욱 분발하여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나아가며 금골광산의 모든 갱들과 소대들에서는 영웅소대의 경험을 따라배워 보다 큰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검덕로동계급의 충정의 전통을 빛내여나가야 할것입니다.

나는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4.5갱 고경찬영웅소대 전투원들과 전체 광산로동계급이 모두 건강한 몸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설계도따라 사회주의승리봉을 점령하기 위한 보람찬 총진군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만리마기수, 만리마선구자의 영예를 지닐것을 기대합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 정 은

주체106(2017)년 4월 21일

압록강에 첫 떼가 내렸다

압록강에 첫 떼가 내렸다.

첫 떼를 물고 물결을 헤가르는 121호림업련합기업소 류벌공들의 얼굴마다에는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에서 백두의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련일 혁신을 창조해나갈 불타는 열의가 어려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림지조건에 맞는 능률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지난 9일까지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의 84%계선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수천㎥의 통나무를 생산하여 떼무이터에 높이 쌓아놓아 올해의 첫 떼를 내릴수 있게 하였다.

두텁게 얼어붙었던 압록강의 얼음이 녹으면서 물량이 많아진 조건에 맞게 압록강류벌사업소에서는 물동보수와 타리개생산을 비롯하여 떼를 내릴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지난 10일 아침 압록강류벌사업소 동흥물동의 수문이 열리자 뜻깊은 올해의 첫 떼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이날 류벌공들은 파도치는 물살을 헤가르며 500㎥의 떼를 내렸다.

해마다 첫 떼를 타는 련합기업소책임일군들은 류벌공들과 담화도 하고 함께 일도 하면서 오늘의 하루하루를 새 기록, 새 기준창조의 값높은 위훈으로 빛내여가자고 호소하였다.

이에 앞서 압록강류벌사업소 금창류벌작업소에서는 시험적으로 떼를 내렸다. 이날 금창류벌작업소 류벌공들은 떼가 집중적으로 내리게 될 물길상태를 검증하였다.

삼수림산사업소, 자서림산사업소들에서도 마감나르기를 다그쳐 많은 통나무를 떼무이터에 집중하고 통나무고르기, 떼바쪽치기, 떼바쪽련결, 놀대받기 등을 신속있게 하여 떼를 련속 내렸다.

류벌공들은 올해의 첫 떼를 내리는 궁지와 희열에 넘쳐 사나운 물길을 과감히 헤치며 떼노를 억세게 저어갔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전철주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돌격전이 힘차게 벌어지는 속에 고원탄광 김혁청년돌격대원들이 뜻깊은 태양절을 앞둔 지난 12일까지 석탄공업성적으로 상반년 굴진계획을 제일먼저 완수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이 자랑찬 성과는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 사회주의강국건설투쟁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여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뻣뻣이 들어서려는 이곳 돌격대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상반년 굴진계획 빛나게 수행

고원탄광 김혁청년돌격대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청년들은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우리 시대 영웅청년의 값높은 영예를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계획수행기간 탄광당조직에서는 돌격대원들이 눈부신 로력적성과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빛내이도록 정치사상공세를 힘있게 들이대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한용철동무를 비롯한 탄광일군들은 돌격대원들이 일하는 막장들에 들어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존엄높은 백두산청년강국의 주인답게 오늘의 전민총돌격전의 앞장에서 내달리도록 힘껏 떠밀어주었다.

올해 돌격대앞에 맡겨진 전투계획은 지난해에 비해 근 1.5배나 높았다.

하지만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청년전위된 긍지를 안은 대장 차명수동무를 비롯한 김혁청년돌격대원들은 태양절전으로 상반년계획을 무조건 완수할 결사의 각오안고 적들의 제재책동을 우렁찬 굴진동음으로 쳐갈기며 정초부터 일별전투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만리마선구자대회소집에 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접한 때로부터 돌격대원들은 더욱 분발해나섰다.

김경일, 리철은, 김철준, 림성민동무를 비롯한 돌격대원들은 석수가 떨어지는 막장에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천연암반을 뚫고 련속발파를 들이대며 절사전을 벌려 1.4분기 굴진계획을 지난 2월 26일까지 완수하였다.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호소문을 피끓는 가슴마다에 만장약한 돌격대원들은 그들의 투쟁정신, 투쟁본때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총돌격전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섰다.

집단적경쟁열풍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 굴진실적은 최고 3배로 뛰어올랐으며 태양절을 앞두고 돌격대에서는 상반년 굴진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최금희, 김금화동무를 비롯한 로천갱, 승리갱, 은덕갱의 압축기운전공들은 싸우는 고지에 탄약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설비관리를 짜고들어 만가동을 보장함으로써 돌격대가 상반년 굴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지금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진의 보폭을 크게 내짚은 청년돌격대원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각오를 백배하며 더욱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리영민

년간계획, 상반년계획완수자 배출

박천견직공장에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인민적총진군이 힘차게 벌어지는 속에 박천견직공장에서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27명의 년간인민경제계획완수자와 62명의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완수자들이 배출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당조직에서는 대중의 정신력발동에 중심을 두고 공장의 모든 선전선동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였다.

당, 행정일군들이 현장에 내려가 로동자들의 창조적적극성을 최대로 발양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침입식으로 벌리면서 날에날마다 사상전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갔다.

공장에서는 1직포직장을 전형단위로 정하고 적극 내세워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는것과 동시에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과감히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 5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1직포직장 직포공 백정실동무의 경험을 적극 내세우고 일반화하기 위한 소개선전사업을 의의있게 진행하면서 모든 직장, 작업반, 종업원들속에서 집단적경쟁열풍이 세차게 타번지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공장에서는 지난 3월말현재 16명의 년간인민경제계획완수자와 32명의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완수자가 배출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들의 모범을 소개일반화하기 위한 공장적인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는 가운데 일터마다에서 날에날마다 새로운 위훈이 창조되여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또다시 41명의 로동자들이 년간인민경제계획과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완수자대렬에 들어서는 영예를 지니였다.

1월과 2월에 이어 3월에도 비료도와 담요생산을 비롯하여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박천견직공장의 일군들과 전체 종업원들은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더욱 고조시키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심학철

정 론

사회주의조선의 위대한 승리를 보라!

기적의 만리마가 나래쳐오른 조선의 려명신화를 세상에 전한다

1

드디여 터져올랐다!

온 나라가 기다리고 전세계가 지켜본 려명거리 준공의 환호성이 4월의 봄하늘가에 마침내 장쾌하게 메아리쳤다.

얼마나 기다리고 보고싶었던 력사의 위대한 순간이였던가.

뜻깊은 태양절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경축의 꽃바다를 펼친 려명거리 준공식장에 나오시여 하늘땅을 진감하는 《만세!》의 우렁찬 환호속에 준공테프를 끊으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태양같이 환하신 영상을 온 세상이 우러렀다.

《만세!》, 《만세!》, 《만세!》…

온 나라 인민이 감격에 목메여 웨쳤고 전세계가 조선의 위대한 승리자들을 우러러보았다.

얼마나 기뻐하시랴.

한평생 인민의 행복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사회주의 루른하늘아래 솟아난 또 하나의 황홀한 인민의 보금자리를 보시며 너무 기쁘시여 더 밝게 웃으시는것 같다. 우리 장군님께서 다지신 조선아 너를 빛내리의 맹세가 산 화폭으로 펼쳐진 이 광경 보고싶어 룡남산도 우쩍우쩍 키를 솟구는것만 같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려명거리건설은 단순히 하나의 거리를 일떠세우는 공사가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한사코 가로막아보려는 적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이고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사수전, 사회주의수호전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려명거리는 격정의 일과이다.

4월의 이 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굽이쳐흐르는 인민들의 물결이 희한한 려명거리로 하여 더 뜨거운 격동의 용암으로 끓어번진다.

누구나, 어디서나 려명거리이야기이다. 태양의 성지지구에 펼쳐진 만복의 별천지, 사회주의문명의 번화가를 어서 보자고 수도시민들이 이 거리로 끝없이 흘러들고 먼 지방에서까지 온 가족이 려명거리구경길에 올랐다는 일화도 생겨났다. 황홀한 건축물들이 꽉 들어찬 거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디에나 펼쳐져 려명거리는 그대로 활영거리가 되였다.

참으로 볼수록 눈부시고 황홀한 거리, 사회주의문명의 리상거리라고 엄지손가락을 내흔들며 외국의 벗들도 뒤질세라 연해연방 사진기의 사타를 누른다. 이채로운 간판들을 내건 봉사망들에는 각양각색의 우리 제품, 새 인기상품들이 가득 넘쳐나 거리를 찾는 사람들의 기쁨을 더해주고 불야경을 이룬 려명거리의 밤풍경은 또 그대로 절경이여서 누구나 거대한 은하계의 한복판에 서있는듯 황홀경을 금치 못하며 밤에도 이 거리를 떠나지 못한다.

이 희한한 거리에서 살게 된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과 철거세대주민들을 비롯한 인민들의 격정은 그야말로 하늘에 닿았다. 지난 14일 김일성종합대학 체육관에서 진행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배려하여주신 려명거리살림집리용허가증을 수여하는 모임들은 거세찬 격정의 열과, 감격의 해일이였다.

우리 원수님께서 직접 구상하시고 건설을 선포하시였으며 몸소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여 일떠세워주신 태양의 성지지구의 사회주의별천지가 다름아닌 자기들—평범한 교원, 연구사, 철거세대주민들에게 안겨진 꿈만 같은 현실에 흐뭇은 눈물을 쏟고쏟던 모습들, 위대한 어버이의 하늘같은 은덕이 너무 고마와 목청껏 《만세!》를 터치던 가슴뜨거운 화폭은 경사로운 내 조국의 4월에 새겨진 또 하나의 인민사랑의 전설이였다.

세상에 번쩍이는 번화가는 많다. 화려함을 자랑하는 거리들도 무수하다. 우리의 려명거리는 무엇으로 소중한가. 4월의 봄하늘가에 터져오른 려명거리 준공의 환호성은 과연 무엇으로 하여 그처럼 천만의 심장을 세차게 높뛰게 하는것이며 태양절의 하늘아래 솟아난 우리의 려명거리는 어찌하여 그토록 온 세상의 각광을 받으며 인민의 기쁨을 더해주는가.

한 나라, 한 민족이 맞이할수 있는 승리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승리,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확신하는 인민의 기쁨이 찬란히 비껴있는 우리의 려명거리이다. 원쑤들의 야만적인 압살공세속에서도 우리는 자기의 꿈과 리상을 이렇게 보란듯이 성취하며 휘황한 미래에로 기세차게 나아가고있다는것을 력사와 미래에 우렁차게 선언하는 조선의 려명거리이다.

우리는 지금 승리자의 환희와 격정이 온 넋을 휘싸안는 《전승의 광장》—려명거리를 걷고있다.

포연은 흐르지 않고 타다 남은 나무는 보이지 않는다. 허나 여기는 전승의 고지이다. 입에 칼을 물고 달려드는 간악한 원쑤들을 온 세상이 보란듯이 쳐물리친 승리자들의 기쁨이 걸음마다 팡팡 가슴을 친다.

려명거리건설의 수백일, 포성없는 전쟁의 준엄한 날과 달이였다. 이 땅에서 주체의 붉은기를 내리우고 인민의 운명의 보금자리를 빼앗으려는 간악한 제국주의원쑤들과 맞서 우리의 존엄을 지키고 죽어도 잃을수 없는 귀중한 생활과 미래를 지켜 싸운 격렬한 전구였다.

지난해 3월, 날로 무진막강해지는 우리의 위력에 겁을 먹은 적대세력들이 조작해낸 불법무법의 대조선《제재결의》는 사실상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당당한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와 존엄을 유린하고 민족의 발전은커녕 그 생존자체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야수의 무리들의 미친 발악이였다.

바로 그러한 때 온 세상을 놀래우며 착공을 선포한 려명거리건설, 이는 원쑤들의 전대미문의 발악속에서 우리가 자기의 사상과 신념을 어떻게 수호하고 밝은 미래와 행복을 어떻게 창조하는가를 만천하에 시위하는 관가리결전장이였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사회주의를 영원히 없애버리고 우리의 사상과 신념, 운명과 미래를 찬탈하려는 제국주의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박으며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고 우리의 전진을 막을자 세상에 없다는것을 증명하는 엄숙하고 책임적인 본자그대로의 《려명대전》이였다.

4월의 봄하늘가에 려명거리가 장쾌하게 솟아올랐다. 원쑤들 쳐이긴 전승의 환희가 만세의 함성으로 터져오르는 열병광장을 지날 때처럼, 강대한 민족의 긍지와 자부가 온넋을 휘싸안는 전승기념판에 섰을 때처럼 크나큰 환희와 격정이 심장을 뭉뭉 높뛰게 한다. 우리는 이겨도 크게 이겼다. 적들이 무릎꿇고 바친 수백, 수천장의 항복서를 앞에 놓았다한들 이처럼 가슴벅차랴.

수호, 그자체도 경이적인 땅에서 우리는 행복을 창조하고 미래를 꽃피웠으며 사회주의신념의 성새를 더 높이 쌓았다.

세계여, 똑똑히 보라. 전대미문의 야만적인 제재속에서 하늘가에 키를 솟군 눈부시고 황홀한 우리의 새 거리—려명거리를!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원쑤는 그가 누구든 무자비하게 딛고 일떠서 행복의 려명, 승리의 려명을 키어이 맞이할것이라는 조선의 신념과 의지, 힘과 위용의 기념비가 눈부신 행복의 보금자리로 하늘가에 솟구쳐오른것이다.

완공을 앞둔 건설장을 찾으시여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른 건축물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려명거리건설에서 창조되는 건설속도야말로 사회주의조선의 진군속도이며 우리 당의 강국건설속도라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이 가슴을 울린다.

만리마속도창조의 고향, 여기에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우리의 려명거리의 또 하나의 사변이 있다. 력사의 땅 강선이 천리마의 고향으로 그 이름 빛나듯 려명거리는 만리마속도창조의 고향으로 조국청사에 그 이름 빛나게 되였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기상과 정신이, 그것도 만만년민족사의 위대한 시대인 만리마시대를 대표하는 속도가 뜻깊은 태양의 성지에서 탄생하였다는것은 그 의미가 참으로 깊다. 이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의 뜻을 받들어 이 땅우에 하루빨리 인민의 락원,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안아올리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신념의 힘있는 과시이다.

만리마, 외워만 보아도 힘이 나는 그 부름이 여기서는 종이우의 글줄로가 아니라 땅우에 산 화폭으로 펼쳐져있다. 조선의 려명거리는 위대한 김정은시대 만리마기념비이며 그 거대한 해설문이다.

10년을 1년으로 앞당기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강산을 변모시킨 기적의 속도가 오늘은 또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분초가 다르게 전변되는 신화적인 속도로 더욱더 빨라졌으며 려명거리건설은 그것을 실시간으로 증명한 만리마속도창조실록이였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려명거리건설시간을 리해할수 없다. 그야말로 신화적인 속도이다. 우리 나라에서 제일 높은 70층초고층살림집의 골조는 70여일만에, 축구경기장몇개를 합친것보다 면적이 더 큰 이 건물의 외벽타일붙이기는 불과 10여일만에 끝났다. 200일전투가 시작된 첫시기 매일 평균 70여세대의 살림집골조가 형성되여 창전거리건설때보다 2, 3배의 공사속도가 기록되였으며 건설이 선포된 때로부터 불과 넉달 남짓한 사이에 수십동의 아빠트골조들이 치솟았다. 최악의 시련을 최상의 속도로 맞받아나아가는 그 기상은 조선의 눈부신 위용이였고 경이적인 전진의 속도였다. 미국의 인터네트통신까지도 공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74일만에 높이가 200여m에 달하는 초고층건물의 골조가 완전히 형성되였다고 하면서 맹속력으로 일떠서는 려명거리건설소식을 놀라움에 찬 어조로 전하지 않았던가.

우리의 만리마는 더 빨리와 함께 더 높이의 신념으로 나래치는 최첨단돌파의 룡마이다. 보통의 건설도 기적으로 될 준엄한 시련속에서 려명거리건설자들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건축의 본보기, 표준을 안아올리였다. 장산소하천이 흐르던 자리에 세송이의 《꽃》이 피여났다. 우리의 설계가, 건설자들이 점 하나, 선 하나에도 민족자존의 정신을 심어 안아올린 황홀한 건축물이다. 여기서는 땅우에서는 물론 건물의 만장에서도 나무들이 자라고 꽃들이 향기롭긴다. 록색건축, 명란소, 명에네르기건축을 지향하는 현대건축의 추이에 맞게 랭난방도 지열로 보장하고 조명도 태양빛을 리용하고있으며 지붕록화, 벽면록화가 도입되여 거리속의 공원이 아니라 공원속의 거리를 이루었다. 자연재광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실내온도를 보장할수 있는 광섬형피동식태양열난방기술이며 태양빛이 비치지 못하는 지하차고와 기계실과 같은 곳들에 태양빛을 유도하여 자연채광을 보장하는 태양빛유도조명장치, 비물을 회수리용하여 옥상에서 온실농사를 할수 있는 기술을 비롯하여 현대건축의 첨단기술들이 수많이 도입되였다. 인체에 대단히 유익하여 공기비타민으로 불리우는 음이온발생기술이 도입된 벽지와 칠감이 쓰인 이 거리의 건물들에서는 바다가나 무성한 수림속에 있을 때와 같은 건강장수효과를 보게 된다니 이 또한 얼마나 희한한가.

원쑤들은 제재와 압살의 찬바람을 미친듯이 몰아오며 조선의 사회주의가 마지막 숨을 몰아쉰다고 뇌까렸지만 천만에, 우리는 전진도 만리마전진을 하여 이렇게 첨단도 최첨단에 올라섰다.

남의것이란 단 하나도 없는 명실공히 주체의 거리이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전진하는 만리마의 거세찬 호응소리가 걸음마다 가슴을 치는 이 거리, 세멘트와 강재, 목재, 타일, 분양고운 가구들과 출입문들, 문손잡이, 페자, 벽지, 칠감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의것이다. 기니스기록집에 올릴 정도로 길고긴 제재항목들을 만드느라 발악한 원쑤들은 이앞에 수치를 느끼라. 이 힘과 위용앞에 원쑤들의 제재도 봉쇄도 썩은 짚오래기이다. 이 기세차고 위력한 진군을 가로막으려는자는 만리마의 무쇠발굽에 사등뼈도 추리지 못할것이다. 조선은 이렇게 자기가 정한 길을 따라 자주의 길, 사회주의한길을 따라 폭풍노도치며 나아간다. 그 전진을 막을자 행성에 없다.

이 가슴벅찬 진리를, 승리의 과학을 알려면 세계여, 조선의 려명거리를 보라!

2

건축을 두고 소리없는 예술, 굳어진 음악이라고 한다.

우리의 려명거리는 무엇을 목메여 웨치는것인가. 눈부시도록 황홀한 이 거리에서 걸음마다 온넋으로 느끼는 심장의 울림은 과연 무엇인가.

《김정은장군 만세!》이다. 이 땅우에 울리는 김정은장군찬가이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이다.

언제나 이기시는 장군, 한 나라, 한 민족에게 있어서 그처럼 큰 행운은 없다. 이는 민족이 만아안을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고 최고의 영광이다.

우리는 강철의 령장, 백승의 장군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또 이겼다.

우리는 피를 물고 날뛰는 제국주의괴수들을 이렇게 걸음마다 통쾌하게 타승하며 최후의 승리, 행복의 려명을 맞이하고있다는 가슴벅찬 환희와 격정이 온넋을 휘싸안는 려명거리이다.

조선의 승리가 과학이라면 그 과학에는 자기의 절대공리가 있다. 우리 원수님은 언제나 이기신다! 바로 그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걸어온 지난 5년세월이 우리에게 준 추억과 긍지는 많다. 남들의 500년, 5,000년에도 비길수 없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누리고 민족사적사변을 다계단으로 일으킨 그 격정의 날과 달들에 우리 인민이 자기의 벅찬 체험과 행운을 다 합쳐 정립한 절대법칙이 언제나 이기시는 김정은장군! 바로 이것이다.

그이께서 결심하시여 못하신 일 없었고 이루어내지 못하신 기적이란 없었다. 그이의 강철의 담력과 배짱에 무딪쳐 산산조각나지 않은 고난과 시련이 없었고 어떤 경이적인 사변도 우리 원수님 결심만 하시면 벌써 빛나는 실천이였다. 슬죽었던 바다가 인민의 행복을 쏟아내는 황금해로 전변된 기적도 그렇게 태여났고 대재난이 휩쓴 페허우에 장장 천여리에 달하는 사회주의보금자리가 꿈만 같이 펼쳐진 전설적인 사변도 그렇게 태여났다.

위대한 김정은장군, 태양의 그 존함은 곧 언제나 이기시는 장군의 존함이다. 력사의 모든 고난과 시련은 이 승리의 절대공식을 증명하는것으로 될뿐이다.

지난해 3월 17일, 이날은 우리 인민이 또 한분의 백두의 장군이신 우리 원수님을 더욱 뜨거운 열광속에 우러른 뜻깊은 날이다. 불과 10여일전이였다. 날로 무진막강해지는 우리의 위력에 겁을 먹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국제기구까지 동원하여 조작한 불법무법의 대조선《제재결의》제2270호, 력사는 한 나라, 한 민족을 겨냥하여 이처럼 가혹하고 야만적인 제재가 가해진 례를 알지 못하고있다. 그 모든것을 락엽마냥 흩날려버리며 백두의 우뢰소리가 터졌다.

오늘 세계앞에 우리가 또 하나의 새 거리건설을 시작한다는것을 선포하자고 합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은 지금까지 있어본적이 없는 제일 악랄한 제재를 가하면서 우리의 목을 조이려 하고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려명거리를 건설하는것은 적들의 그 어떤 압력에도 끄떡없이 맞받아나아가는 우리 당의 의지를 내외에 시위하는것으로 되며 우리를 어째보려고 날뛰는 제국주의자들의 더러운 몸통에 비수를 꽂는것으로 됩니다. …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승리의 작전도 인듯 펼쳐진 려명거리모형사판을 보시며 우리 원수님 하신 이 말씀, 그것은 그대로 지난 1950년대 이 땅에 미제가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그날 호랑하게 웃으시며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소.》라고 하시던 백두의 장군 우리 수령님의 강철의 담력이였다.

너무도 놀랍고 경이적인 사변앞에 세계는 어리둥절해졌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제재결의》를 떠들썩 보도하던 외신들이 일제히 조선의 려명거리건설소식으로 끓어번졌다.

해낼수 있는가, 만일 진짜로 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적인 사변이라는것이 외신들의 일치한 견해였다.

하지만 세계는 다 몰랐다. 우리 원수님께서 진정 얼마나 강인담대한 배짱과 담력을 지니신 강철의 령장, 백두의 장군이신가를.

지난해 9월 북부피해복구전투에로 전당, 전군, 전민을 무르신 우리 원수님께서는 그처럼 중대한 려명거리건설도 일시 중단하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장의 숨결과도 같은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가슴에 품고 려명거리건설자들도 북부지역으로 급파되였다.

적들은 때를 만난듯 뇌까렸다. 조선이 강력한 제재와 봉쇄속에서 시작한 려명거리건설로 댁을 다 뽑았기때문에 북부복구는 실현불가능한것이라고 어리석게 장담했다. 하지만 불과 수십일만에 두만강연안의 무려 천여리에 달하는 방대한 지역에 전화위복의 새 절경이 펼쳐졌다. 악에 받친 원쑤들이 지난해 11월 《제재결의》를 또다시 조작하였지만 놈들이 보란듯이 이 봄에는 기적의 려명거리가 하늘가에 키를 솟구었다.

묻노니 력사여, 이런 위대한 승리를 본적 있는가. 이처럼 통쾌하고 가슴후련한 백승명장의 전설적무훈담을 들은적 있는가.

언제나 이기시는 우리의 장군! 그래서 언제나 승리만이 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이다. 천만의 심장에 암반마냥 더 억세게 자리잡은 이 철의 진리야말로 수소탄 100발, 1,000발 보유한것보다 더 위력한 우리의 힘이다.

승리를 과학으로 정립하고 자기의 미래를 찬란한 려명으로 확신하는 이 시각 천만의 심장은 어이하여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는가.

려명은 태양의 힘이다. 언제나 이기시는 우리 원수님, 그 기적의 비결은 바로 우리 원수님 지니신 이 세상 제일 뜨겁고 무한대한 기적의 힘, 인민사랑의 정과 열에 있다.

못 잊게 어려온다. 지난 3월 창조의 불빛 환한 건설장에 서시여 사회주의 내 조국의 동이 터오는것만 같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그 영상, 이 땅에 행복의 새 아침이 어떻게 동터오는가를 가슴치게 새겨주는 화폭이 아니였던가.

우리는 려명신화창조의 실록을 번진다. 그 첫 페지에 려명거리건설을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우리 원수님의 사랑과 헌신의 력사가 눈물겹게 수놓아져있다.

우리 원수님께서 지도해주신 려명거리형성안은 무려 천수백건에 달한다. 문수물놀이장의 113건의 형성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때가 엊그제같은데 또 이렇게 가슴뜨거운 헌신의 실록이 여기 행복의 새 거리에 새겨진것이다.

70층살림집, 려명거리의 상징과도 같은 이 건축물은 그대로 려명거리건설장에 대한 우리 원수님의 로고와 헌신의 상징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금 70층살림집의 7층 3호에 들어선다. 우리 원수님께서 두번이나 찾아주신 이 집이다. 세상에 집주인이 들기도 전에 한 나라의 령도자가 두번이나 돌아보신 이런 집이 어디에 있겠는가.

너무도 기쁘시여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던 우리 원수님, 인민들과 기쁨을 함께 나눌 날이 하루하루 다가온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흥그러워진다고 하시던 그 음성귀전에 울리며 눈물이 앞을 가리운다. 마치 고생은 말없이 묻어두고 자식들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렇게 우리 원수님 70층 5호, 4호, 3호에 차례로 들려보시였다. 혁명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바쁘신 시간을 뒤로 미루시고 인민들이 살게 될 살림집들을 구석구석 일일이 돌아보시였다. 평범한 가정주부들이 리용할 부엌에 들어서시여 편리성을 가늠해보기도 하시고 공동살림방의 쏘파에도, 아이들의 방에 놓인 작은 의자에도 몸소 앉아보시였다. 우리 원수님은 너무 기쁘시여 환히 웃으시는데 어이하여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던가.

원수님 외투자락에 묻은 하얀 연마가루,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설장, 정리되지 않은 어설픈 현장에 몸소 찾아오신 그이의 로고가 바로 그 외투자락에 묻은 연마가루에 천만근의 무게로 어려있어 후더운 눈물을 끝내 떨구었던 건설자들이였다.

한 장령이 우리가 시대의 기록자들이라는것을 알고 꼭 써달라고 하던 이야기를 그대로 여기에 적는다. 우리 원수님 건설장을 찾으신 지난 1월은 아직 많은것이 미완성상태였다. 70층의 건물을 불과 수십초만에 오르는 승강기도 아직 시운전상태였다. 바로 그런 승강기에 우리 원수님께서 주저없이 오르시였다. 정말 다리가 떨렸다고, 가슴이 졸아드는것을 금할수 없었다고, 우리 인민들이 이렇게 우리 원수님께서 시운전상태에 있는 승강기를 타시고 살림집을 돌아보신줄 알기나 할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팍 치오르는것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면서 두눈을 슴벅이던 그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날 우리 원수님 몸소 누르신 승강기의 시동단추에 손을 대여본다. 우리 원수님 체취가 그대로 어려있는것 같아 목이 팍 메인다. 드넓은 세상천지에 이런 이야기 과연 어디에 있어보았던가.

마식령스키장의 시운전작도에도, 피착륙시험비행을 진행하는 경비행기에도 서슴없이 오르시고 개선청년공원 유희장의 시운전유희기구에도 먼저 오르시던분, 아, 목이 팍 메여온다.

아아한 려명거리의 초고층살림집들은 우리 원수님의 그처럼 뜨거운 인민사랑과 헌신이 응축된 두터운 실록같아 눈물이 앞을 가리운다. 이 희한한 거리는 그대로 인민을 행복과 문명의 상상봉에 높이높이 받들어세우시려는 우리 원수님의 꿈과 리상의 대전경화인것이다.

운명의 태양, 사랑의 태양을 높이 모신 인민처럼 행복한 인민은 없다. 이 세상 제일로 인민을 사랑하시며 하늘처럼 떠받드시는분, 사색도 실천도 오로지 인민을 위한것이고 사랑과 증오도 바로 그 인민을 위해 활화산처럼 불길치시는 우리 원수님, 그 품에서 행복의 려명이 밝아오고 더 휘황한 승리의 래일이 동터오고있다. 그이는 이렇게 우리의 오늘과 미래를 밝히시는 위대한 태양이시다.

그처럼 위대하고 따사로운 운명의 태양을 모신 이 하늘아래에 어찌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 인민의 고백으로 울리지 않으랴.

3

천만이 려명신화의 창조자들처럼 살며 싸우자!

이것이 오늘 시대와 혁명의 엄숙한 부름이다.

만리마속도를 창조한 려명거리건설자들이야말로 당과 혁명이 바라는 오늘의 만리마선구자들이다. 이들이야말로 전후 6만t능력의 문페압연기에서 12만t의 강편을 뽑아낸 강선의 로동계급처럼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당을 결사보위한 영웅들이며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장군님의 붉은기사상과 신념을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든 강계정신의 창조자들과 같은 시대의 기수, 선구자들이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려온 이날이였습니까. 준공테프를 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는 저희들의 가슴마다에 당의 권위보위전, 사회주의수호전, 인민복무전에서 승리하였다는 격정이 팍 차올랐습니다.》

준공식장에서 만났던 한 려명거리건설자가 두눈을 슴벅이며 하던 말이다.

얼싸안아주고싶고 뜨겁게 포옹하고싶은 려명신화의 창조자들, 그 빛나는 위훈의 첫 갈피에 수령결사옹위의 신념이 빛발친다.

려명거리건설의 승리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결사보위하자! 이것이 려명신화창조자들의 심장에 맥동친 신념이고 의지였다.

그 앞장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우부대—혁명적당군이 서있었다. 《당군의 본때》, 건설이 시작되였던 그때 군인건설자들이 건설장에 집채만 한 크기로 써붙였던 이 글발, 그것은 마치 려명전역의 문패같았다. 려명전구는 우리 인민군대가 혁명적당군의 본때를 어떻게 떨치는가를 만방에 시위하는 또 하나의 판가리결전장이였다.

땀흠으로도 오르기 힘든 초고층살림집의 천여개 계단들을 불등을 지고 하루에 열번이 넘게 오르내린 군인건설자들, 장산소하천정리가 진행될 때에는 중기계가 들어서기 힘든 감탕에 서슴없이 뛰여들어 미대웅벽을 쌓아가며 기초를 닦은 병사들이였다.

병사들이 일떠세운 건물들에 가보면 교과서처럼 세워진 형성안들이 있었다. 너무도 신통하여 형성안을 확대한것처럼 여겨지는 건축물들, 점 하나, 선 하나 지어 벽에 걸린 풍경화까지도 우리 원수님께서 보아주신 형성안그대로였다. 추호의 에누리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사색도 실천도 오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구상과 의도대로만 하는 혁명적당군의 투쟁본때이고 창조기풍이다.

혁명적당군, 참으로 우리 군대의 이 위대한 호칭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미증유의 힘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가슴치게 새기게 하는 뜻깊은 부름이다. 려명거리건설만으로도 이들은 창조의 영웅들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전당, 전군, 전민을 북부피해복구전투에로 부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진격의 화살표마냥 북부로 급파되여 불과 몇달사이에 천여리 전화위복의 황홀경을 펼친 군인건설자들, 그리고는 또다시 려명전역으로 돌아와 한겨울의 추위속에서 덧집을 짓고 공사를 힘차게 내밀었다. 엄동의 강추위를 물리치며 승리의 봄을 일당긴 그 열기는 바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이라면 불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여들어 력사의 어떤 기적도 창조해내는 혁명적당군의 결사옹위정신의 활화산같은 불길이였다. 불과 한해사이에 이렇게 이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대한 두 전선의 대승을 안아온 창조의 영웅, 기적의 영웅들이 되였다.

전승의 기쁨을 안고 빛난 혼장 가슴팍에 번쩍이며 돌아오는 영웅들을 맞이할 때처럼 온 나라 인민은 려명전역참전자들을 심장으로 얼싸안는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사상과 구상을 최상의 경지에서 받들어가는 혁명적당군을 조국과 인민은 세상에 목청껏 자랑한다.

려명신화의 창조자들은 우리 시대의 긍지높은 만리마기수들이다. 이들은 단순히 하나의 거리를 일떠세운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인간들이 따라배워야 할 투쟁기풍과 일본세, 창조의 높이를 표본처럼 새겨놓았다.

다른 건설장에서는 볼수 없는 려명전구의 특이한 풍경이 있었다. 건설장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한 주변환경이였다. 하루일이 끝나면 스스로 도로관리원이 되여 태양의 성지로 향한 길을 정성껏 관리한 건설자들, 그 충정과 의리의 마음에 받들려 일떠선 려명거리는 우리 시대 기수, 선구자들의 기적과 위훈의 주추가 무엇인가를 가슴치게 새기여준다.

당과 수령의 요구가 공칭능력이라는 신념으로 기적을 창조한 천리마기수들처럼 이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가 자기들의 투쟁목표라는 결사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인 오늘의 진웅원, 김학실들이다. 비록 본적도 없는 급착기이고 뜨락또르였지만 우리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조국이 기다리는것이기에 설계도면보는 방법부터 배워가며 끝끝내 만들어내고야만 천리마시대 락원과 기양의 로동계급처럼 이들은 첨단건축을 돌파해야 하는 어려운 건설을 최상의 경지에서 완공한 기적의 창조자들이다.

점 하나, 선 하나에도 피라는 사색과 열정을 바쳐 백두밀림의 청신한 모습과 전진하는 주체강국의 강용한 기상, 눈부시게 비약하는 사회주의문명의 높이가 비껴있는 건설작전도를 훌륭히 완성한 설계가들과 우리 나라 건설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대담한 건설공법들과 록색건축기술을 적극 개발도입하여 주체건축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건축기술자들은 진정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애국의 불타는 의지로 만방에 떨친 우리 시대의 영웅들이다.

그 모든 위훈과 기적을 다 합쳐 우리의 려명거리가 행성에 웨치는 벅찬 토로가 있다.

일심단결의 기념비, 이것이 바로 조선의 려명거리의 진짜이름이다.

려명거리 만세는 바로 일심단결 만세이다.

려명전역은 일심단결대하의 용용한 급이침이다. 병사들도 과학자들도 인민들도 한마음한뜻이였다.

지난 3월 우리 원수님께서 려명거리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신 후 분화구를 터친 용암마냥 더욱 세차게 끓어번진 려명전역, 온 나라에서 끝없이 흘러든 지원의 물결은 천이였던가, 만이였던가. 노래춤 안고 오는 유치원어린이들도 있었고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마련한 지원물자를 안고 온는 소년단원들도 있었으며 전시가요를 힘차게 불러주는 전쟁로병들도 있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다 보인 려명전구였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는가. 수령의 부름이라면 천만이 하나가 되는 위대한 힘, 바로 여기에 조선의 백승의 비결이 있다. 원쑤들을 전률케 하는것은 바로 이 일심단결의 위력이며 태양의 성지에서 더욱 뜨겁게 빛발치는 만리마시대 이 단결의 위력앞에 원쑤들은 기겁한다.

해으로도, 제재와 봉쇄로도 정복하지 못한 인민을 기어이 말살하기 위해 원쑤들은 지금 저 분계선너머에서 감히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노리는 천하무도한 발악에 매여달리고있다. 우리의 심장을 해치려고 달려드는 원쑤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분노의 불길이 이 땅에 활활 타오른다.

생명의 요구처럼 강한것은 없다.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는 우리 생명의 요구이고 삶과 미래의 전부이다. 이를 빼앗으려는 간악한 원쑤를 우리 어떻게 용서한단 말인가. 놈들이 꿈쩍만 하면 이 땅에서는 천만이 혜록탄이 되여 상상할수 없는 무서운 분노의 용암을 터칠것이다. 바로 이 수령결사옹위의 성벽—려명거리를 안아올린 무적의 대오만으로도 우리는 미쳐날뛰는 원쑤들의 대갈통을 여지없이 뭉지박신낼것이며 또한 이 사회주의보금자리에 안겨사는 인민들모두가 행복의 요람을 지켜, 그것을 안겨준 운명의 태양을 옹위하여 서슴없이 심장내대고 결사옹위성전에 산악같이 일떠설것이다.

위대한 운명의 태양이 빛나고 그 두리에 불변의 성좌를 이룬 천만군민이 있는 한, 위대한 사상과 신념이 있고 위대한 당과 인민이 있는 한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것이다. 인민사랑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우리는 제2, 제3의 《려명거리신화》들을 계속 창조할것이며 그 길에서 최후승리의 려명, 사회주의강국의 붉은 려명을 기어이 맞이할것이다.

려명거리여, 사회주의조선의 위대한 승리의 기념비여!

영광의 시대 만리마속도창조의 고향으로, 세계를 향하여 눈부시게 나래쳐오르는 위대한 김정은조선의 영웅기상으로,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로 영원히 솟아 빛을 뿌리라.

방 성 화, 리 수 정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 우리 나라 버섯공장의 본보기, 표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평양버섯공장을 찾아서

인민위한 그 사랑 사시절 버섯바다로 펼쳐지리

우리는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으시였던 평양버섯공장의 구내길을 걷고있다.

연건축면적이 1만 9 950여㎡에 달하고 버섯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가 완벽하게 실천된 년산 1 000여t능력의 현대적인 버섯공장.

흰색과 감색의 타일들로 정결하게 단장된 건물들, 남새와 버섯을 동시에 재배할수 있는 여러동의 박막온실들, 수백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관목들, 파란 잔디밭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공장의 전경도 산뜻하고 멋있다. 원료투입으로부터 출하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구축된 통합생산체계, 당의 국산화방침이 철저히 관철되고 자동화, 흐름선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생산공정들은 또 얼마나 희한한가.

안팎으로 멋있는 공장의 곳곳을 돌아볼수록 평양버섯공장은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공장, 우리 나라 버섯공장의 본보기, 표준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정넘치신 음성이 귀전에 쟁쟁히 울려오는듯싶어 가슴이 벅차오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이민위천의 한생으로 인민을 키우시고 조선을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사상과 업적을 귀감으로 삼고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할것이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갈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려는것은 당의 확고한 결심!

돌이켜보면 맛있고 영양가높은 버섯을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이 먹이시려고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워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우리 원수님 그 얼마나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오셨던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버섯연구기지를 일떠세워주시여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수 있는 튼튼한 과학연구 및 보급기지를 마련해주신분도, 조국땅 방방곡곡에 크고작은 현대적인 버섯공장들을 건설하도록 해주시고 버섯생산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주신분도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평양버섯공장도 그렇게 일떠선 또 하나의 인민사랑의 결정체였다.

평양시민들을 위한 능력이 큰 버섯공장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평양시교외에 위치도 몸소 잡아주시였을뿐아니라 공장을 온 나라 버섯공장의 본보기, 표준이 되게 일떠세워주시려 강력한 설계 및 시공력량을 파견해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알곡부산물을 적게 쓰면서도 사시절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는 여러가지 버섯품종을 재배할수 있게 생산공정을 꾸리며 통합생산체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구축할데 대한 문제 등 공장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만 하여도 심어진이나 된다는 이곳 일군들의 격정넘친 이야기도 우리 무심히 들을수 없다.

인민들의 식탁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높이 울리게 하시려는 우리 원수님의 념원 얼마나 뜨겁고 강렬하시였으면 기술자, 기능공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문제로부터 공장의 로력배치문제에 이르기까지 깊이 관심해주셨으랴.

그 사랑, 그 은정속에 평양버섯공장은 멸균법에 의한 생산공정만이 아니라 알곡원료를 전혀 쓰지 않고 발효법으로 버섯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할수 있는 현대적인 공정까지 훌륭히 갖춘 원가절약형, 에네르기절약형의 공장으로,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섰다.

그처럼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를 마련해주시고도 못 잊을 그날 공장건설에 기여한 설계 및 시공단위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아직은 너무도 한 일이 없는 자기들과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모습을 우러르며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심장깊이 새겨안은것은 무엇이였던가.

인민들의 식탁을 하루빨리 풍성하게 해주시려는 우리 원수님의 뜨거운 진정이였다.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일재부로 소중히 간직하시고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시며 미래의 휘황한 보든것을 당겨오실 절세의 위인의 위대한 용지였다.

하기에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버섯재배에서도 세계를 압도하며 사시절 버섯바다를 펼쳐가기 위해 떨쳐나선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열정과 기세는 대단하다.

균실재로 영양을 흡수하는 버섯에는 뿌리가 없다.

하지만 우리 원수님의 위대하고 열렬한 인민사랑의 뜻과 정에 뿌리를 두고 계절이 따로 없이 펼쳐질 버섯바다가 눈앞에 어려와 가슴이 젖어든다.

가방목포, 이불목포, 떡명거리 새집들이, 멋쟁이공장에 사시절 펼쳐질 버섯바다…

적들이 제아무리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미쳐날뛰여도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의 만복은 이렇게 시시각각 활짝활짝 꽃펴나고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우리 식 사회주의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필승불패이다.

글 본사기자 장은영
사진 본사기자 리명남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재로

오늘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로,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로 일떠선 평양버섯공장을 찾는 사람들은 당의 국산화방침을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가슴뿌듯이 체험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투쟁목표를 통이 크게 세우고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제품의 질제고와 설비, 원료자재의 국산화를 중요한 정책적문제로 틀어쥐고 힘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이 공장의 생산공정들은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자동화, 흐름선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였다.

우리와 동행한 일군의 말에 의하면 공장을 일떠세우면서 국가과학원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방직기계공장, 평양금속건재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이 참가하여 수십종에 수백대에 달하는 현대적인 설비들과 10여종에 160여점의 자동화요소들을 제작설치하였다고 한다.

그 제작수준과 운영안정성이 매우 높아 몇달동안 생산공정을 운영해본 종업원들은 우리의것이 제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다.

기대공들이 조종반의 단추만 누르면 분쇄와 혼합이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원료분쇄공정과 기질혼합공정도 그러하지만 특히 눈길을 끄는것은 기질주입공정이다. 기질병들을 탑은 상자들이 흐름선을 타고 기질공급기에 들어가면 눈깜박할 사이에 기질들이 가득 채워지고 운반밀차에 실려 자동멸균로로 옮겨지는 광경앞에서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한다. 보면 볼수록 우리의 주체적력량과 우리의 기술에 의거하면 못해낼것이 없다는 신심이 한껏 넘쳐난다.

이처럼 희한한 모습은 이 공정에만 펼쳐진것이 아니다.

멸균, 종균접종, 배양공정을 거친 기질병의 마개를 벗기고 굴막을 제거하며 수분을 보충하는 등 모든 공정이 자동화, 흐름선화되여있다. 재배장은 온습도, 탄산가스농도에 따라 랭온풍기와 배풍기, 가습기들이 자동적으로 동작하면서 버섯재배에 알맞는 조건을 보장할수 있도록 꾸려졌다.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재로 제작설치한 여러가지 설비들과 각종 자동화요소들…

덩치가 큰 여러대의 버섯기질발효기는 또 어떠한가.

이 설비는 안에 기질을 넣으면 자동조종반을 통하여 기질발효가 과학적으로 진행되도록 만들어졌다. 증기발생기, 배풍기, 송풍기, 각종 전자변 등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높은 수준의 설비를 제작하자니 제기되는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손쉽게 수입에 의존할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과 지혜로 세계와 경쟁하며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닌 과학자, 기술자 그리고 로동자들과 일군들의 배심은 든든하였다.

설비제작에 필요한것을 수입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남에 대한 의존심이 싹트고 자라나면 자립성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나중에는 민족적자존심까지 없어지게 된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탐력과 배짱으로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버섯기질발효기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자.

이처럼 대담한 목표를 내세운 그들은 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였다. 피타는 사색과 탐구로 성공의 열쇠를 찾아낸 그들은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재로 그처럼 어렵다던 버섯기질발효기제작을 끝끝내 성공시키였다.

현대화의 기틀이 차넘치는 그 어느 공정을 돌아보아도 우리의것에 대한 긍지로 가슴이 부풀어오른다.

생산공정의 매 구성요소를 이루고있는 그 하나하나의 설비와 자동화요소마다에 씌여진 우리 공장들의 이름들을 읽어볼수록 이 희한한 모든것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생각에 감탄이 절로 터져나오고 눈굽이 젖어든다.

그리고 다시금 심장깊이 새겨안는것이 있다.

우리의 주체적인 력량과 우리의 기술에 의거하는 현대화가 우리 당이 바라는 국산화라는것을, 바로 여기에 조국번영의 지름길이 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앞당길수 있는 비약의 담보가 있다는 철의 진리를.

본사기자 황철민

세계를 압도해갈 목표드높이

과학기술보급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관,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들에서 과학기술전당과 망으로 련결된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려놓고 운영을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며 그들이 해당 단위의 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로정을 따라 걷는 우리의 위대길은 과학기술보급실로 이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에도 들리시여 과학기술보급사업을 잘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격정에 젖어있는 일군인 김정룡동무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서면 우리는 저도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다.

첫눈에 안겨드는 모습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탐구적인지 방해라도 될가 서슴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던것이다.

국가망과 련결된 콤퓨터들을 마주하고 최신버섯재배기술자료들을 열심히 탐독하는 기술일군, 현대적인 생산설비들의 구조와 동작원리가 현시된 화면에서 좀처럼 눈길을 떼지 못하는 젊은 기사, 여러가지 다매체편집물을 보며 수첩에 무엇인가 또박또박 적어나가는 애어린 처녀로동자…

그 열정적인 눈빛들만 보아도 과학기술보급실이 어떻게 운영되고있는지 대번에 알수 있었다.

정말 열의들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우리의 말에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책임지고있는 리경철동무는 운영일지를 내보이는것이였다. 거기에는 날마다 이곳을 찾는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과 기사들은 물론 로동자들의 이름이 백여명이나 적혀있었다.

그의 이야기가 우리의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수십명의 종업원들이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원격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강의들을 받고있는데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후부터 그 지망자수가 훨씬 늘어났다고 한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졸업생인 강진룡동무가 버섯생산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원료의 배합비률을 더욱 과학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완성하기 위해 짬시간만 있으면 찾아오고 있는데 완성단계에 들어섰다. 창의고안명수들인 황정혁동무와 고향남동무는 제대군인들이여서 그렇게 승벽심이 강한지 아무리 일이 바빠도 하루도 어김없이 찾아와서는 마지막에야 일어서군 한다.

그뿐이 아니였다. 중학교를 갓 졸업한 김진미, 로향미동무들도 지금 원격교육체계에 망라되려고 그 준비를 하고있는데 콤퓨터에 열중하면 나머지 되근차를 놓친적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이야기…

우리는 그 이야기속에서 비록 겉보기에는 더없이 정법한 이들의 가슴속에 버섯재배에서도 세계를 압도하겠다는 대담한 목표와 야심만만한 배심이 바위처럼 자리잡고있다는것을 후덤게 느낄수 있었다.

진정 과학기술보급실이야말로 이들에게 있어서 그 목표실현에로 나래쳐가게 하는 믿음직한 비약의 도약대가 되려니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제일 앞장에서 받들어나갈 이들의 혁신적성과들을 확신하며 우리는 이곳을 떠났다.

글 및 사진 박영진

은을 내는 통합생산체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통합생산체계와 무인조종체계를 확립하고 특색생산방식을 비롯한 앞선 생산방법을 받아들이며 중요한 경제기술지표들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고 부단히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공장의 통합생산지휘실 한쪽벽면을 꽉 채운 대형현시판에는 규모에 있어서나 지능화, 정보화수준에 있어서 완벽한 통합생산체계가 일목료연하게 펼쳐져있다.

경영정보체계와 생산관리체계, 자동조종체계로 구성되여있는 통합생산체계.

이것은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와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공학부 연구사들이 창조적인 사색과 탐구의 나날속에 훌륭히 완성한것이다.

지난 시기 여러차례에 걸쳐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자기들의 연구사업정형을 보고드리고 높은 평가를 받은 이들은 평양버섯공장의 통합생산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는데서도 당정책결사관철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였다.

버섯생산에 대하여 어지간한 표상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형현시판을 보고도 공장의 생산 및 경영활동전반을 한순간에 파악하고 운영할수 있을 정도로 알기 쉽게 구체화되여있다.

한두명의 생산지휘일군이 이곳에 앉아 설비, 자재, 로력, 동력관리 등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실시간으로 제기되는 모든 정황들을 대형현시판을 통해 확인하고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생산을 과학화할수 있게 되였다.

실례로 어느 한 재배장의 온도가 설정값을 초과하여 올라가는 경우 경보가 울리는 한편 대형현시판에도 표시되여 그 원인을 찾아 제때에 대책을 세울수 있다.

설비들의 운영과정을 실시간적으로 기록한 리력그라프분석을 진행한데 기초하여 합리적인 공정정수들을 설정하며 멸균 및 발효공정과 배양장, 재배장의 온습도, 탄산가스농도조종을 무인화한것은 통합생산체계의 완벽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로 된다.

이처럼 우리의 주체적인 력량과 우리의 기술에 의거하여 원료투입으로부터 출하에 이르기까지 통합생산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놓은 결과 공장에서는 생산공정의 자동화, 흐름선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철 버섯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에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침으로써 인민생활을 보다 향상시킬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을 실천으로 확증할 결의밑에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제힘을 믿고 떨쳐나 군을 사회주의선경으로

피현군 소재지를 돌아보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많이 일떠세우면 그만큼 강성국가의 기초가 튼튼히 다져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터전이 훌륭히 마련되게 됩니다.》

피현군이 최근 몇해사이에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변모되여가고있다. 체육관, 물놀이장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후생시설들과 소층살림집들이 일떠섰으며 새 도로들이 뻗어나가고 다리들이 건설되여 군의 면모가 일신되였다.

이 성과의 밑바탕에는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대중의 앞장에서 만짐을 지고 헌신하는 군일군들의 진위적인 일본새가 놓여있다.

자기 힘을 확신할 때

제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천리도 지척이다. 이것이 바로 피현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도로와 다리들을 건설하는 과정에 새겨안은 진리이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군에서 이러한 용사를 한해사이에 해제낀다는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기고있었다.

그때 군당책임일군으로 사업하게 된 장영국동무는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다. 더우기 그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것은 일부 일군들이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군당책임일군은 도로와 다리들을 건설하는 과정을 통하여 일군들의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아주기로 하였다.

군에서 도로와 다리건설을 첫 대상으로 정한데는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많은 로력과 품이 드는 도로와 다리들을 건설하는 과정을 통하여 군안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자기 힘을 확신하고 떨쳐나설 때 그 어떤 기적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자는데 있었다. 그래서 군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신심을 가지고 달라붙게 하자는것이였다.

일군들은 우선 로력과 기계수단은 물론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때 공장, 기업소, 가두인민반단위로 작업조직을 물샐틈없이 진행하였다.

도로공사에 진입한 첫날의 이른새벽, 자기 힘을 굳게 믿고 삽은기를 휘날리며 렬을 지어 전투현장으로 보무당당히 나아가는 근로자들의 대오속에는 질풍을 진 군일군들의 모습도 보였다. 군의 책임일군들무리가 도로건설장들에 지휘부를 전개하고 군안의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때로는 노래도 부르며 그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켰다.

온 작업장을 들었다놓는 경제선동의 북소리, 땀을 씰씰 흘리며 만짐을 지고 달리는 일군들, 함마로 바위들을 쨍쨍 까내며 기세를 올리는 근로자들… 작업장은 말그대로 대고조격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이렇게 대중에게 신심을 주고 그들의 앙양된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군에서는 10만여㎡의 토량을 40여일만에 불이 번쩍나게 처리하고 도로로반을 일떠세워 다져놓았다.

군에서는 단계별목표를 세우고 도로와 다리건설을 계속 동시에 밀고나갔다.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심에 넘친 일군들은 도로건설과 관련된 세멘트와 골재는 어느 단위가 운반하고 어떤 대상은 공장 또는 기업소직인 력량으로 건설하며 어느 대상에는 기계수단을 총동원하고 로력배치를 어떻게 하여 며칠동안에 끝낸다는 식으로 치밀한 작전을 펼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갔다.

제힘을 믿고 떨쳐나선 대중의 힘은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였다. 결국 군안의 도로와 다리건설은 빠른 기간에 끝나게 되였다.

여기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한 군당책임일군은 군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총궐기시켰다.

자체로 일떠세운 도로와 다리들을 보면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군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앞채를 메고 내짚은 첫걸음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때까지 완강하게 내미는 군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에서 주목되는것은 대오의 앞장에서 만짐을 지고 뛰는 이신작칙의 혁명적사업기풍이다.

군소재지에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며 새로 일떠선 체육관, 물놀이장, 공원, 모체양표장, 소층살림집들을 바라보며 동행한 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최근년간에 거둔 성과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군들이 당의 의도대로 만짐을 지고 일해온 결과에 이룩된 귀중한 창조물들입니다.》

그러면서 당의 의도대로 앞채를 메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 군당책임일군을 비롯한 군일군들의 이신작칙의 일본새에 대하여 많은것을 이야기해주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인민들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함에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주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 앞채를 메고 떨쳐나섰다.

일군들은 우선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체육관을 자체로 일떠세울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군에서는 지방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적미감에 맞는 설계를 완성한데 기초하여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시공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앞장에서 세멘트와 강재를 비롯한 자재보장사업을 선행시키면서 공정간 련결을 빈틈없이 하여 공사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갔다. 그리하여 군체육관은 짧은 기간에 번듯하게 꾸려졌다.

2층으로 건설된 체육관은 배구, 롱구, 탁구를 비롯한 여러 종목의 경기를 할수 있게 훌륭히 꾸려졌을뿐아니라 홍련장, 문화후생시설 등도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군책임일군들은 체육관을 훌륭히 일떠세운 경험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련이어 건설하기 위한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특특하게 건설된 물놀이장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을 정히 받들어가는 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

많은 암반을 처리하고 물을 퍼올려야 하는 등 공사량은 참으로 방대하였다. 더우기 난문제로 제기된것은 겨울철에도 운영할수 있게 보이라를 설치하고 석탄을 보장하는것이였다.

우리 군의 실정에서 겨울철까지 부디 물놀이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고 하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그때 군책임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을 꽃피우기 위해 우리가 만짐을 지고 몸이 열포작, 백포작이 나도 기어이 자체의 힘으로 먼 후날에도 손색없이 건설하자고 일군들을 고무하였다.

우리 대만이 아니라 후대들에게 물려줄 보다 훌륭한 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자. 우리가 고생하더라도 후대들이 락을 누리게 하자. 이렇게 시작된 물놀이장과 공원건설이 짧은 기간에 완공되였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읍지구의 근 5 000세대에 대한 수도공사를 새로 진행하여 먹는물보장조건을 더욱 개선한것은 이 군의 또 하나의 자랑이다.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수질이 좋은 맑은 물이 집집에 흘러드니 인민들의 기쁨은 또 얼마나 클것인가.

이 공사는 참으로 방대하고 아름찼다. 군인민위원회 위원장 조정철동무는 수도관을 해결하기 위해 수백리길도 마다하지 않았다. 군인민위원회일군들도 건설에서 걸린 문제들을 한가지씩 맡아가지고 뛰였다. 일군들이 전투장의 한복판에 뛰여들어 대중의 앞장에서 헌신하는 사업기풍은 군안의 근로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말없는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의 사상공세속에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기가 비할바없이 높아졌고 군에서 내세운 목표는 하나씩 알심있게 실현되였다.

물놀이장까지 책 말린 온덕원이며 번듯하게 새로 꾸려진 공원에도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제힘으로 일떠세운 창조물에 대한 긍지감과 보람이 한껏 어려있었다.

사회주의경쟁의 열풍속에 군을 꾸리는 사업에서는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나게 되였다. 올해에도 이들은 읍지구의 전반적도로들의 콩크리트포장, 가로등설치와 군식료공장을 현대화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해나가고있다. 3년 남짓한 사이에 군소재지에는 어려동의 소층살림집과 물놀이장, 공원, 모체양표장, 체육관이 일떠서고 수질이 좋은 맑은 물이 집집마다 흘러들어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되였다.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았다.

자기 군은 자기 힘으로 꾸린다는 관점에서 열백밤을 새워라도 사회주의선경을 기어이 펼쳐놓기 위해 만짐을 지고 뛰고 또 뛰는 일군들의 혁명적인 일본새에 있다.

피현군안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이 땅우에 기어이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의 찬란한 현실을 펼쳐놓을 일념안고 오늘도 만짐을 지고 창조의 큰걸음을 힘차게 내짚고있다.

본사기자 김강철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에 즈음하여

청년학생들의 웅변모임 진행

조선인민군창건 85돐경축 청년학생들의 웅변모임이 21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판계무문, 청년동맹일군들, 청년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경축시 《경례를 받으시라》로 시작된 모임에서 출연자들은 백두산천출명장들에 의하여 창건되고 주체위업, 당의 위업과 함께 승승장구하여온 백승의 군대, 불패의 혁명무력을 가지고 있는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리광혁은 웅변 《강철의 명장》에서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령군술로 정규적혁명무력건설의 가장 빛나는 본보기를 창조하시고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백전백승의 력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법으로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리고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를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은 이 세상 제일가는 장군중의 장군, 명장중의 명장이시라고 그는 언급하였다.

그 누가 내 마음 물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시며 헤쳐가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선군장정의 길에 대하여 감명깊게 이야기한 속도전청년돌격대 대원 백옥숙의 웅변 《선군길》은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그 어떤 원쑤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웅변 《홍대와 청춘》에서 평양연극영화종합대학 학생 김철우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청춘의 행복한 삶과 밝은 미래를 담보해주는 필승의 보검인 백두산홍대를 더욱 빛내여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보통강구역 락원고급중학교 학생 리진아는 신천땅의 피의 교훈을 뼈속깊이 새기고 미제가 이 땅우에 또다시 침략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리수복영웅처럼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다 바칠 신념의 명세를 웅변 《복수자의 선언》에서 피력하였다.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학생 안금혁은 웅변 《우리의 최고사명관》에서 백두의 역전가상과도 같이 장인담대한 배짱과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은 더 높이 떨쳐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격동적이고 호소성이 강한 웅변들은 혁명무력건설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갈 청년전위들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세게 해주었다.

농근맹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웅변모임 진행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에 즈음한 농근맹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웅변모임이 2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김창업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농근맹일군들, 평양시안의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은인》, 《혁과 혁이삭》, 《분패》, 《조국과 쌀》, 《통지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농근맹중앙예술선전대 배우 문철원, 안악군 남정농장 농장원 권명옥, 룡천군 음협농농장 농장원 장은정, 강남군 장교협동농장 농장원 리혜옥, 황해남도농근맹위원회 부원 리병수가 출연하였다.

출연자들은 주체적인 군건설사상과 로선으로 자주시대 혁명무력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시고 반제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수호전을 련전련승에로 이끄시여 선군조선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다져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토로하였다.

일찌기 총대우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도, 혁명의 승리도 있다는 총대중시, 군사중시로선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형의 첫 혁명적무장력을 창건하시고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는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백두산혁명강군의 불패의 군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지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에 대하여 감동깊게 이야기하였다.

전인미답의 선군장정의 길에 새겨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에 대하여 감명깊게 토로하며 그들은 우리의 강위력한 핵억제력은 내 조국의 맑고 푸른 하늘아래에서 황금벌, 황금산의 새 력사가 끝없이 펼쳐지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은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줄기차게 전진시키시며 자주의 핵위성으로 최강의 국력을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쌀이자 총대이고 국력이며 반미대결전에서 백승을 떨치기 위한 물질적담보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지나온 년대들마다에 쌓로써 당과 조국을 받들어온 전세대 애국농민들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오늘의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순결한 충정과 애국의 더운 땀, 째끗한 량심을 바쳐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농업전선에서의 자랑찬 성과로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전쟁로병과 녀맹일군들, 녀맹원들의 상봉모임 진행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에 즈음한 전쟁로병과 녀맹일군들, 녀맹원들의 상봉모임이 21일 녀성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장춘실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녀맹일군들, 녀맹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전쟁로병 주재헌이 발언하였다.

그는 경사스러운 4월 25일은 주체적혁명무력이 탄생한 민족사적대경사의 날이라고 하면서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에 대하여 감명깊게 이야기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때려부시고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를 창조하였으며 세기를 이어오는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희세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였기때문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우리 조국을 목숨바쳐 지켜갈 일념안고 17살에 인민군대에 용약 입대하여 락동강전투, 월비산전투 등 수많은 전투들에 참가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군용사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전법으로 단 15분만에 미제가 《불퇴의 선》이라고 호언장담하던 351고지를 점령하는 눈부신 전과를 거둔데 대하여 그는 실감있게 이야기하였다.

그는 총잡은 전사들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며 혁명의 군복을 입고 한생을 빛내이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인민군대의 기동감들을 키워내는 군사교육사업에 애국충정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전쟁로병들을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내세워주시고 우리 혁명무력을 최강의 핵억제력을 가진 무적필승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고 계신다고 그는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는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주체조선의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을 당부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에서 선군시대 조선녀성의 본분을 다해나갈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인민무력성에서 주조 무관단을 위하여 영화감상회 마련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에 즈음하여 인민무력성에서는 21일 주조 무관단을 위하여 영화감상회를 마련하였다.

영화감상회에는 무관단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인민군 군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이 땅우에 세상을 들었다놓는 특대사변들과 경이적인 성과들을 이룩하시며 주체혁명위업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수록한 우리 나라 기록영화 《위대한 령도 민족사적대승리 2016년의 영웅적인 투쟁사를 전한다》를 감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외국손님들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1일 에찌프트 오라스콤전기통신수단 및 기술주식회사 리사장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나라와 민족의 통성번영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인류사에 길이 빛날 거대한 업적을 쌓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총련일군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송동휘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일군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의 고귀한 생애를 보여주는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이 전시되여있는 만경대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유서깊은 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열렬한 조국애와 혁명의 큰뜻을 키우시며 성장하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만경대고향집은 태양의 성지이며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이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다고 말하였다.

대표단은 또한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평양카방공장, 과학기술전당 등을 참관하였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대표단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방문

태양절경축행사에 참가한 더모트 하드슨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대표단이 21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를 방문하였다.

조일민대표와 지부성원들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담화를 하였다.

조일민대표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남녘의 각지에서 조국해방과 민족의 대단합, 나라의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이 뜨겁게 분출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악랄한 제재압살책동과 무모한 《선제타격》기도에 초강경으로 대응하려는 공화국의 립장은 미국과 괴뢰패당에게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고있지만 이 남민중은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핵전쟁에는 섬멸적인 핵타격전을 가할 북의 의지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정당한것으로 격찬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더모트 하드슨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이 해위협공갈과 북남대결소동에 미쳐날뛰고있다고 하면서 박근혜의 파면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은 곧 자멸을 초래할뿐이라고 말하였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는 앞으로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담화에서는 날로 가중되는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의 침략적인 핵전쟁연습과 반공화국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조직적인 련대련합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외무성대표단 아랍나라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출발

신홍철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외무성대표단이 일부 아랍나라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21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특단의 선택도 마다하지 않을것이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성명

조선반도와 지역의 첨예한 긴장상태와 전쟁위험을 해소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것은 온 민족과 인류의 지향이다.

그러나 오늘 조선반도정세는 미국의 횡포한 군사적위협과 핵공갈책동으로 말미암아 날로 더욱 험악해지고있다.

지난 2개월동안 포괄적인 선핵안을 탁우에 올려놓고 검토해오던 트럼프행정부가 마침내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대조선정책을 확정하고 무모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수리아에 대한 불의적인 순항미싸일타격을 감행하고는 그것이 우리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하였는가 하면 《대북선제타격》을 포함한 독자적인 군사적대응에 대해서까지 떠들어대면서 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를 향하여 대량 들이밀고있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고 돌아가던 《칼빈손》호핵항공모함타격단을 되돌려세운데 이어 미국서해안에 있던 《니미쯔》호핵항공모함타격단도 추가로 조선반도주변수역에 급파한다 어쩐다 하고있다.

결국 《로날드 레간》호까지 3척의 핵항공모함타격단이 조선반도작전수역에 전개되는것으로서 이것은 미국의 광증이 계선을 넘어서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한편 얼마전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부대통령 펜스는 북은 미국의 의지를 오판해서는 안된다느니, 《전략적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느니, 핵과 탄도미싸일개발계획을 끝낼것을 재촉한다느니 뭐니 하며 그 누구를 감히 위협해보려고 헛소리쳤다.

괴뢰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을 비롯한 보수패당도 《북이 추가도발하면 감내하기 어려운 징벌적조치를 취하겠다.》느니, 《북의 전략적셈법을 바꾸게 하겠다.》느니 하는 호전망발을 토해내는가 하면 미국의 핵항공모함타격단과 함께 강도높은 대규모합동훈련을 벌릴것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제 죽을지 모르고 날뛰고있다.

날로 험악한 국면으로 치달아오르는 전쟁세는 미국과 괴뢰들이야말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고 파괴하는 장본인이며 도발과 침략에 환장한 전쟁광신자들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미국의 무분별한 《대북선제타격》기도가 실천단계에 들어서고 조선반도정세가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에 직면한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립장을 천명한다.

우리 공화국은 평화애호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 누구보다도 평화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피하려 하지도 않는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특단의 선택도 마다하지 않을것이다.

설대병기 수소탄으로부터 대륙간탄도로케트에 이르기까지 가질것은 다 가지고 고도의 격동상태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침략도 맞받아칠수 있는 우리식의 모든 선택안들이 있으며 미국이 카해오는 그 어떤 도발에도 기꺼이 대응해줄 준비가 되여있다.

세계의 여러 전장에서 선제공격과 참수작전에 주로 동원되였다고 광고하는 《칼빈손》호같은 핵항공모함타격단이건 그보다 더한것이건 멋모르고 덤벼드는 망동이때로밖에 보지 않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핵없는 나라, 힘이 약한 민족을 골라 타격하며 힘자랑을 하는 미국의 히세따위에 놀랄 우리가 아니다.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핵전쟁에는 우리 식의 핵타격전으로!

이것이 침략자, 도발자들에게 주는 우리의 대답이다.

침략자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에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그 본거지들을 우리 식의 섬멸적인 초강력타격으로 초토화해버려 생존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릴것이다.

우리의 존엄이고 생명인 혁명의 수뇌부를 노려고있는 적대세력들은 남조선이 단방에 재가루가 되고 일본렬도가 침몰하고 미국본토에 핵우박이 쏟아진다 해도 후회하지 말아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도발자들이 져야 한다.

트럼프는 닉슨의 《미치광이리론》을 숭배하면서 아무앞에서나 힘자랑을 하려들것이 아니라 《미친개는 몽둥이로 때려잡는다.》는 조선속담을 똑바로 새겨보는것이 좋을것이다.

자기를 지킬 힘이 없으면 남강도가 휘두르는 폭제의 몽둥이에 무참히 얻어맞고도 하소할데가 없는 무법천지의 세상을 보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병진로선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가 자위적핵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온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를 더욱 절감하고있다.

미국의 횡포무도한 군사적도발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가려는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미국은 저들에게만 선택권이 있지 않다는것을 알아야 하며 아메리카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에 최종선택을 심중하게 해야 할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는 정의의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감으로써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더욱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것이다.

주체106(2017)년 4월 21일
평 양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공보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북, 남, 해외 공동실무위원회 제2차회의가 지난 4월 11일과 12일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였다.

전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남측준비위원회, 해외측준비위원회 실무위원회 성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상순에 진행된 공동실무위원회 회의이후 북, 남, 해외측준비위원회들의 활동정형들이 통보되였으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실현을 위한 준비사업을 진행해나가는 과정에 제기되는 실무적문제들과 당면활동방향에 대해 협의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전민족대회가 당국을 포함한 각계각층 대표들이 폭넓게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으로 되여야 한다는데 대해 다시금 확인하고 전민족대회를 올해안에 반드시 실현시킬것을 결의하였다.

당면하여 6.15공동선언발표 17돐을 북, 남, 해외가 공동으로 기념하며 이를 계기로 전민족대회 북, 남, 해외 공동실무위원회 제3차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기간 북과 남의 로동자, 농민, 녀성 등 계층별대표들의 실무접촉이 있었다.

접촉들에서는 6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북남선언발표기념기간에 북남로동자, 농민단체별대표자회의, 상봉모임, 북남로동자통일축구대회 등 다양한 공동행사들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주체106(2017)년 4월 21일
평 양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여러 종목의 경기가 다음주에 계속된다.

23일(일요일) 오전 기계제조 청년급 남, 녀경기가 청춘거리 경경기관에서 진행된다.

청춘거리 송구경기관에서는 송구 1급 남, 녀경기가, 청춘거리 경경기관에서는 탄력망 1급, 청년급 남, 녀경기가, 평양체육관에서는 권투 성인급 남, 녀경기가, 청춘거리 수영경기관에서는 수영 1급 남, 녀경기가, 평양항공구락부에서는 락하산 1급, 2급 남, 녀경기가 27일까지 벌어지게 된다.

유술 성인급 남, 녀경기는 청춘거리 중경기관에서 26일까지, 사격 성인급 남, 녀경기는 압록강국방체육단에서 24일까지 있게 된다.

남자축구경기는 5월1일경기장과 서산축구경기장에서, 녀자축구경기는 서산축구경기장에서 진행되게 된다.

제19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하였던 외국손님들과 재중동포들이 떠나갔다

제19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하였던 몽골 김정일화협회 대표단과 중국 단동전원무역유한공사 총경리일행이 21일 렬차와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이에 앞서 중국 단동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총경리일행, 중국 미술가화보사 사장일행, 중국 단동전원무역유한공사 대표단, 중국 심양결사박무역유한공사대표단과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전 부총장일행, 중국 연변천성상무유한공사 총경리일행이 갔다.

에찌프트 오라스콤전기통신수단 및 기술주식회사 리사장 도착

나기브 싸위리쓰 에찌프트 오라스콤전기통신수단 및 기술주식회사 리사장이 21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박명철 체신성 부상이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최악의 민생파탄과 경제파국을 빚어낸 반역《정권》의 만고죄악을 폭로한다

조국통일연구원 고발장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역도와 공모한 보수패당들이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보려고 획책하면서 민심을 우롱해나서고있다.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광고하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감옥에 처박힌 박근혜역도의 수많은 죄악중의 하나는 반인민적악정과 극도의 부패무능으로 남조선사회를 사람 못살 생지옥으로 만들어놓은것이다.

남조선보수패당은 천하의 인간추물 박근혜역도를 청와대에 들여앉히고 년의 수족이 되여 온갖 반역통치를 일삼으며 민생과 경제를 망쳐놓은 공범들이다.

조국통일연구원은 새 사회, 새 정치, 새세상을 갈망하는 민심에 또다시 도전해나서고있는 반역패당의 죄악의 민생파탄과 경제파국실상을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해 이 고발장을 발표한다.

반역정치와 살인악정에 의해 무참히 교살된 민생

박근혜패당은 집권전 추악한 집권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요란하게 광고하며 민심을 유혹하였다.

남조선의 일부 사람들이 《아이를 굶기지 않으며 헌신하는 어머니마음으로 생활정치, 사랑의 정치》를 하겠다는 꿀발린 소리에 홀여나 치마임은 《대통령》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눈물을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닦아주지 않겠는가 하는 미련을 가졌던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박근혜패당이 가져다준것이란 《국민행복시대》가 아니라 최악의 불행시대, 민생도탄시대였다.

박근혜집권기간 남조선인민들은 삶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여지없이 짓밟혔다.

돈과 일자리에 의해 생사가 판가름되는 남조선에서 실업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남조선에서 실업자수는 박근혜의 집권 첫해에 비해 23.3% 늘어난 450여만명에 이르고있으며 반실업자수는 무려 1 000만명, 청년실업률은 34.6%로서 사상 최고수치를 기록하고있다.

특히 청년들의 실업은 사랑, 결혼, 해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에 이어 집마련과 인간관계마저 포기하는 《5포세대》, 삶자체를 포기하는 《삶포세대》까지 등장시켰다.

박근혜패당의 반인민적악정이 초래한 처참한 현실은 《로동개혁 5대법안》조작책동에서도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역적패당이 조작한 《로동개혁 5대법안》은 1%밖에 안되는 재벌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99%의 절대다수 평범한 근로대중은 자본의 노예로 만들것을 목적으로 한 악법중의 악법이다.

《로동개혁 5대법안》의 하나인 《근로기준법》을 보더라도 그것은 기업주가 부당한 리유를 내대고 로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로동시간을 연장하고도 그에 해당한 수당금을 잘라먹게 만들어놓았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도 비정규직로동자들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부터 4년으로 늘임으로써 그들에게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를 주지 않는 내용으로 되여있다. 이 법은 2년이라는 고용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한 현행 《비정규직법》을 개악한것으로서 비정규직로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떼우지 않겠으면 2년을 더 비정규직으로 있을것을 강요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정규직로동자들도 최저임금마저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으로 언제 굴러떨어질지 모를 불안에 떨고있는 판에 비정규직로동자들이 정규직으로 된다는것은 하늘의 별따기로 되고있다.

산업현장전반에 대한 파견업종확대를 골자로 하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 역시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는것으로서 남조선로동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자아내고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도 근로대중의 생존권을 여지없이 침해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박근혜패당은 기업주들이 로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려먹고 해고시킬수 있게 공간을 조성하는 제도적장치들도 만들어냈다.

피뢰당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반해고, 취업규칙변경지침이 바로 그러한 법적장치들이다.

집권초기 《증세없는 복지》를 떠들던 박근혜패당은 《세법개정안》이라는것을 피뢰국회에서 강제로 통과시킴으로써 인민들에게서 더 많은 혈세를 빨아내수 있는 법적토대까지 구축하였다.

이 민생교살악법으로 온갖 반인민적인 세금정책들이 람용되고 《세금폭탄》들이 련이어 터져 민생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밀어넣고있다.

공개된데 의하면 피뢰당국이 남조선의 한 가정으로부터 빨아내는 년평균 세금액수는 2016년에 2010년보다 수천US$ 더 늘어났으며 주민들은 면적이 겨우 0.7평 되나마나한 집 아닌 죽방에서 살아도 매달 수백US$의 집세를 내야 한다.

박근혜의 집권기간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과 물가로 민생은 더욱 처참한 상태에 놓여있다.

남조선의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난해 서울에서의 주택평균가격은 2015년 1월보다 5만US$나 더 올랐으며 물가 또한 년평균 15%씩 뛰여올라 주민들의 생계를 시시각각 위협하고있다.

치료비와 약값도 너무 비싸 《가난하면 앓지 말라.》는 말이 류행어로 되고있다.

남조선신문 《한겨레》는 《병을 앓는 아이를 둔 부모들은 〈병고〉, 〈생활고〉, 〈가족고〉 등 〈3중고〉를 겪어야 한다.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린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가슴은 숯덩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치료비용에 눈물만 떨구기 일쑤이다.》라고 개탄하였다.

남조선에서는 전체 주민세대의 45%에 달하는 700여만세대가 제 집이 없어 뜨내기살이를 하고있고 1 000여만명의 빈곤층이 삶의 막바지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다.

제 집이 없어 월세, 전세를 내여가며 남의 집 곗방 한칸을 빌려 사는 세방살이, 《무허가정착촌》, 《달동네》와 같이 주소도 없는 움막집, 판자집, 비닐박막집, 집함집 등 집 아닌 집에서 하루살이처럼 사는 사람들도 무지기수이다.

사회의 99%를 이루는 절대다수의 인민들이 막바지인생으로 살고있을 때 1%의 특권층, 부유층들은 인민들이야 죽든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일신의 치부와 영달, 향락에 몰젖어있다.

피뢰당국이 쏟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현재 남조선에서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격차는 2016년에 2006년의 8.8배에서 12배로 더 벌어졌으며 1 000만명의 로동자들이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최악의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을 때 특권층과 재벌들은 고간에 돈을 쌓아놓고 부귀영화를 누리고있다고 한다.

박근혜년만 해도 옷을 무려 180여벌이나 갖추어놓고 하루에도 몇번씩 갈아입으며 돌아쳤다.

박근혜역도와 그 패당은 집권기간 온갖 독기를 부리며 남조선에 전대미문의 대참사까지 불아왔다.

박근혜년이 집권하여 1년반도 못되는 사이에 경상북도 경주시 체육관지붕붕괴사고, 경기도 고양시 뻐스종합주차장과 전라남도 장성군 효양병원화재사고, 아시아나항공회사소속 려객기착륙사고 등 50여건의 각종 대형사고들이 일어났다.

2015년에도 2012년에 비해 무려 2배나 많은 2 740건의 해양선박사고가 발생하고 112명이 죽거나 실종되였다.

그리고 박근혜의 집권 3년동안 일어난 교통사고는 년평균 21만 5 000건, 사망자와 피해자수는 33만 3 000여명에 달하여 오늘 남조선은 세계 1위의 교통사고지옥으로 락인되고있다.

《자고 일어나면 사고가 났다는 불길한 소식뿐이다.》, 《도대체 이 땅에서 안전지대가 어디인가.》,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겠다.》는 불만과 하소연이 남조선주민들속에서 련일 터져나오고있다.

남조선을 동서고금에 없는 재난지역, 대참사지역으로 전락시킨 박근혜패당의 범죄는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국제사회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는 《세월》호참사를 통해 더욱 똑똑히 알수 있다.

300여명의 생명이 검푸른 바다에 무참히 수장된 《세월》호침몰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뜻밖의 재난이 아니라 철두철미 박근혜에 의해 빚어진 고의적인 특대형참사이다.

《세월》호참사에 이어 일어난 메르스사태도 역도년의 반인민적악정이 빚어낸 인재이다.

2015년 5월 온 남녘땅을 아비규환의 대수라장으로 만들어놓은 메르스사태는 박근혜패당의 무책임한 대처로 200여일동안 지속되면서 감염자수 186명, 사망자수 38명, 격리대상자수 1만 6 000여명이라는 인적피해를 가져왔다.

2016년에는 세계적인 우려를 자아내는 지카비루스감염환자까지 발생하였는가 하면 지금도 C형간염, 에이즈, 결핵, 수족구병과 같은 전염병, 질병들이 계속 퍼져 사람들을 커다란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있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남조선을 가리켜 《위생방역이 제일 한심한 지역》, 《자본의 리익을 위해서는 모든것이 용인되는 가장 천박한 곳》이라고 비난하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역시 돈벌이에 환장한 외국의 다국적기업과 피뢰재벌기업들이 박근혜패당의 묵인하에 독성화학물질이 포함된 살균제를 대량적으로 판매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이다.

원래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의혹은 2011년 당시 피뢰보건당국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유해롭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것을 계기로 수많이 제기되였었다.

하지만 박근혜패당은 《과학적해명이 미약》하다는 구실밑에 사건을 덮어버리고 오히려 묵인조장하였다.

지난해 1월부터 8월말까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직접적피해자수는 3 204명, 사망자수는 693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잠재적피해자수가 작게는 29만명, 많게는 227만명에 달하는것으로 조사되는 등 대참사가 일어났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물론 야당들도 《정부허가로 생산판매한 가습기제품은 살인제품이였다.》, 《인류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다.》, 《제2의 〈세월〉호참사》라고 보수패당을 준렬히 규탄해나섰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의 한 특별보고관은 가습기살균제사건에 대한 실태보고서를 통해 피뢰당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라는 의무를 리행하지 않은데 대해 추궁하고 재발방지와 피해보상대책을 시급히 세울것을 요구해나섰다.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문제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 피뢰역적패당의 고의적인 살인범죄로서 《세월》호참사, 메르스사태와 함께 역적패당의 반인민성을 낱낱이 폭로하고있다.

이처럼 박근혜역도년을 비롯한 피뢰패당의 반역정치, 반인민적악정에 의하여 남조선은 인권과 민생의 무덤, 인간생지옥으로 화하였다.

생의 빛이라고는 한줄기도 찾아볼수 없는 처절한 암흑사회, 북마전에서 살래야 살수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원한의 세상을 저주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자 죄많은 아버지를 용서해달라며 판불을 피워놓고 목숨을 끊은 로동자, 빚을 갚을 길이 없어 4살짜리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15층아빠트에서 뛰여내려 목숨을 끊은 30대녀성 등 자살의 길을 택한 사람들의 정상은 그야말로 참혹하기 이를데 없다.

현재 남조선은 세계 1위의 《자살왕국》으로 되고있다.

피뢰당국이 국회 쏟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박근혜역도의 집권 4년간 자살자수는 6만명을 훨씬 넘어섰으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무려 500만명, 자살을 계획하는 사람은 거의 200만명에 달한다.

자살자들이 남긴 유서의 대부분은 《사는것이 힘들다.》, 《가진자의 론리에 굴복하는것이 이 사회의 합리》 등의 내용으로서 그 근원이 박근혜패당이 몰아온 반인민적악정과 사회악에 있다는것을 적라라하게 고발하고있다.

《헬조선》, 《자살공화국》, 이것이 바로 남조선에 대한 민심의 절규이고 국제사회가 내린 개탄이며 박근혜가 떠든 《국민행복시대》의 참상이다.

추악한 사대매국과 극도의 부패무능이 초래한 경제파국

박근혜역도는 4년전 18대 피뢰대통령취임식에서 《경제부흥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키염을 토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은 경제부흥은커녕 수습할수 없는 경제파국의 진창에 빠져들어갔다.

박근혜역도의 집권기간 대외무역의존률이 70%이상에 달하고 금융시장의 자본총액중 60%이상이 미국을 비롯한 외국자본에 의해 유지되고있는 남조선경제의 전형적인 예속구조는 더욱 심화되였다.

남조선경제의 대외수출은 해마다 줄어들었고 이른바 3대주력산업도 위험계선이하로 추락하였으며 기초산업이라고 하는 석유화학산업 역시 하강선을 그었다.

남조선경제의 이러한 대외수출의 부진은 주변나라들의 정책변화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있다.

주변나라들이 피뢰패당의 친미반역적이고 반평화적인 《싸드》배치에 반발하여 일부 상품들에 대한 수입금지 및 제한조치를 취한데 이어 남조선상품불매운동을 벌리고있는 등 본격적인 무역보복조치를 취하여 남조선경제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다.

설상가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내들고있는 미국의 트럼프정부가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강박하고 보호무역장벽을 높일것으로 예상되여 무역수지가 걷잡을수 없이 악화되게 되였다.

남조선의 제3의 무역상대국이라고 하는 일본도 올해에 들어와 피뢰들과의 《통화맞교환협상》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고 《고위급경제협의체》를 언기하는 등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을러메고있는 형편이다.

남조선언론들은 《수출이 최악의 사면초가신세에 빠져들었다.》, 《20년전의 외환위기공포가 몰려오고있다.》고 아우성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기업들의 대외수출이 최악의 상태에 빠졌을뿐아니라 내부시장마저 주민들의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는 바람에 붕괴된 상태이다.

현재 남조선 전체 세대가운데 65%가 소득에 비한 부채비률이 평균 169%에 달하여 소비는커녕 빚도 갚을수 없는 형편에 처해있다.

피뢰패당이 2017년에 《가계부채》증가를 막는다는 미명하에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종전보다 5~10%나 올리겠다고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주민들의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경제전문가들은 《전례없는 소비한파가 들이닥치고있다.》, 《경제가 소비절벽에 부딪쳐 성장을 멈추게 되였다.》고 개탄하고있다.

피뢰당국이 안고있는 《국가채무》도 세계최악의 수준이다.

박근혜역도가 한갖 선무당에 불과한 최순실과 작당하여 인민들의 혈세를 긁어모으는데 피눈이 되여있는 동안 《국가채무》는 력대 최고인 1조 1 700억US$로 치솟았다.

언론, 전문가들은 력대 《정부》들과 비교해볼 때 박근혜 《정권》시기에 《가계부채》와 《국가채무》증가액은 모두 최고수치를 넘어섰으며 남조선전체가 빚으로 연명하는 꼴이 되였다고 한결같이 조소하고있다.

협악한 경제침체는 기업들의 련쇄파산으로 이어지고있다.

2015년에만도 남조선의 포항철강산업지구에서 26개의 기업이 파산되였고 포항종합제철의 후신인 포스코는 50년만에 경영적자를 내고 구조조정에 들어가 19개 회사를 팔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선업의 경우에도 적자액이 천문학적액수에 달하여 선박들을 과철값으로 팔아치워야 하는 비상경영체계에 들어가게 되였으며 특히 지난 2월 남조선의 해상운수업계를 대표한다는 한진해운은 설립 40년만에 완전히 파산되였다.

현재 파산에 직면한 남조선의 대기업수는 2012년에 비해 37%나 늘어났으며 수출제품생산에 참가하는 2 00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무리로 몰락하고 그것이 제조업전반에 확대되면서 무려 9만여개의 제조업체들이 줄줄이 파산되였다.

남조선경제의 이러한 파국은 박근혜를 비롯한 보수패당의 반역정치와 부패무능의 필연적결과이다.

박근혜패당은 집권기간 외세의 배만 불리워주는 사대매국적인 경제정책으로 남조선경제를 빈사지경에 빠뜨렸다.

사대매국이 골수에 배인 박근혜년은 집권후 첫 해외행각으로 대양건너 미국으로 날아가 상전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실행의 일환으로 되는 수입개악놀음에 돌아친것을 비롯하여 제년의 《외교치적》을 쌓느라 한번에 300만US$씩 탕진하며 다른 나라들을 찾아가 굴욕적인 《자유무역협정》체결놀음을 벌려놓았다.

역적패당의 굴욕적인 《자유무역협정》체결놀음으로 남조선의 내부시장이 외국기업들에 먹히우고 무역적자가 크게 늘어나고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것은 관세철폐를 통해 다른 나라의 시장을 뚫고들어가기 위한데 기본목적이 있다.

그러나 제것이 없고 남에게 의존하는 예속경제, 기름경제인 남조선경제는 피뢰보수패당의 《자유무역협정》체결놀음으로 수출기업의 50%이상이 피해를 입고 수출액은 해마다 10%이상 줄어들고있는 등 오히려 내부시장이 다른 나라에 의해 침습당하고있다.

박근혜년과 그 패당의 친재벌정책도 남조선경제파국의 주요원인이다.

박근혜년은 집권기간 《써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한 25개의 《경제개혁법안》들을 내들고 이와 관련한 80여차의 각종 경제회의들을 벌려놓았다.

그러나 년이 내든 《경제개혁안》들은 친재벌법안으로 민심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박근혜패당은 특대형부정부패행위로 산소마스크를 끼고 마지막숨을 몰아쉬고있는 경제위기를 더욱더 가중시켰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박근혜년은 선무당에 불과한 최순실년과 공모하여 대기업인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을 뜯어내 사리사욕에 착복했고 현대자동차, 롯데, SK 등 다른 대기업들로부터도 특별사면과 세무조사무마를 비롯한 각종 명목으로 엄청난 액수의 뇌물을 받아먹었다.

이 특대형추문사건에 걸려든 50여개의 주요대기업우두머리들이 검찰조사와 청문회, 재판에 끌려다니게 되였다.

경제문외한인 박근혜년과 그 패당의 무모한 《경기부양정책》 역시 남조선경제를 파국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은 주되는 원인이다.

박근혜년과 그 패당은 빈사상태에 처한 남조선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정부》예산을 늘이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최대한 끌어내여 시장에 푸는것이라고 하면서 중앙은행의 리자률을 력대 최하로 낮추고 해마다 로무현 《정부》의 5배, 리명박 《정부》의 1.3배에 달하는 《국채》를 람발하였다.

그러나 경제는 살아난것이 아니라 침체상태에 빠져들고 금융투기업자들의 사기와 협잡은 날로 우심해져 기업들과 가정들이 엄청난 빚더미에 눌리워 허덕이고있다.

남조선의 야당들과 사회 각계는 《현재 막대한 국가채무를 걸머지고있는 상태에서 재정확대에 나서는것은 그야말로 무모한짓이다.》, 《수가에산은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것일뿐이다.》, 《최악의 국야처방에 불과하다.》, 《위기를 잠시 모면해보려고 정부재정을 완전히 파탄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고 규탄하고있다.

박근혜가 얼마나 무지하고 우매한 시정배인가 하는것은 역도가 내들었던 《474공약》을 통해서도 더 잘 알수 있다.

남조선언론들과 경제전문가들이 박근혜년의 《474공약》에 대해 《재벌위주, 수출위주의 취약한 경제구조와 심각한 가계부채, 저출산고령화, 세계금융시장의 불안, 주변나라들과 신흥국들의 경제성장률감소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공허한 수자놀음》, 《시장원리도 모르고 세운 아마츄어정책》, 《벌에서 따온 정책》, 《리명박의 747련종상품》이라고 비난하고있다.

남조선경제의 파탄은 박근혜패당의 극악무도한 동족대결책동으로 하여 극도에 이르고있다.

6.15시대의 옥동자, 북남화해협력의 상징으로 남아있던 개성공업지구를 깔랑치다 못해 끝끝내 폐쇄시킨 박근혜패당의 망동이 남조선경제에 끼친 엄청난 후과가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역적패당의 개성공업지구전면폐쇄망동으로 120여개의 남조선입주기업을 포함하여 6 000여개의 기업들이 파산위기에 직면하고 12만 4 000여명의 로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되였다.

남조선의 개성공업지구비상대책위원회는 120여개 입주기업의 피해액이 1조 5 000억원에 달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남조선 각계는 《박근혜의 개성공업지구중단조치로 대북제재효과보다 입주기업들의 경제적손실이 더 크다.》, 《박근혜는 수백억US$를 손해보는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준렬히 단죄규탄하였다.

금강산관광중단으로 남조선강원도 고성군주민 3 000여명이 살길이 막혀 팔뚝이 흩어졌고 지난해까지 경제적손실액은 2억 5 000만US$에 달한다고 한다.

남조선의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데 의하면 금강산관광중단, 개성공업지구폐쇄 등으로 2016년까지 입은 경제적피해액은 265억US$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이 《경제알에는 온통 지뢰밭이다.》, 《박근혜정권에 의해 내우외환의 악재가 한꺼번에 겹쳐 경제가 최악의 벼랑끝에 몰리게 되였다.》고 아우성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 *

남조선에서 민생파탄과 경제파국은 전적으로 박근혜역도를 비롯한 친미보수역적패거리들이 몰아온 비극이다.

그런데도 박근혜년과 그 잔당들은 저들의 만고죄악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무죄》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추태를 부려고있다.

특히 보수패당은 《서민들을 위한 정권을 세우겠다.》느니,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느니 하는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궤변으로 민심을 기만하고 우롱하면서 보수재집결로 다시 권력을 찬탈해보려고 어리석게 날뛰고있다.

박근혜역도년과 보수패거리들의 이러한 망동은 정의와 민심의 심판에 대한 전면도전이다.

악의 근원은 송두리채 뽑아버려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정의의 초불로 천하여적 박근혜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그 기세, 그 기백을 더욱 높이 떨쳐 역도년과 공범자들인 보수패거리들에게 최후의 철추를 내리고 근로대중의 생존권이 참답게 보장되는 새세상을 기어이 안아와야 할것이다.

주체106(2017)년 4월 20일

평 양

《종북》소동은 출로로 될수 없다

피뢰보수패당이 파멸의 함정에서 헤여나기 위해 벌리고있는 모략적인 《종북》소동이 절정에 달하고있다. 이자들은 지금 남조선 각계의 초불투쟁과 그로 인해 박근혜역도가 탄핵, 구속당한것을 뻔뻔스럽게도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키면서 비렬한 음모와 모략날조에 미친듯이 열을 올리고있다. 피뢰보수패거리들은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이 《종북세력의 정치공작이 빚어낸 란동》과 《북의 지령을 받는 친북좌파세력의 음모》에 의한것이라고 허튼 나발을 불어대면서 초불투쟁참가자들을 《북의 배후조종을 받는 종북세력》으로 몰아대고있다. 지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세력들에게까지 《종북좌파》, 《친북세력에게 동화된 정치세력》이라는 감투를 씌우고 마구 헐뜯으면서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보수계층이 총집결하여 《좌파정권》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고 비린청을 돋구고있다.

더러운 명이 꺼져가는 숨가쁜 속에서도 동족대결의 악습만은 버리지 못하고 황당무계한 《종북》나발을 제쳐대며 미친개마냥 발악하고있는 역적무리들의 망동에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온 겨레가 솟구치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천추에 씻지 못할 만고죄악을 저지르고도 역스러운 낯짝을 쳐들고 《종북》소동에 광분하며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 도전해나서는 피뢰패당의 허튼수작질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박근혜의 비참한 종말은 남조선의 국우보수세력들이 《유신》독재의 부활을 꿈꾸며 악귀같은 년을 청와대에 들어앉힌것으로 하여 빚어진 필연적귀결이다.

피뢰보수패당은 《유신》독재자의 후예인 박근혜가 집권하면 그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파탄된 경제가 회복되여 《국민행복시대》가 열리게 될것이라는 허황하기 짝이 없는 수작을 늘어놓으며 온갖 부정협잡과 음모적인 방법으로 끌끌내 피뢰역도를 《대통령》자리에 앉히였다.

이리하여 청와대안방을 차지하게 된 박근혜역도는 애비의 《명예회복》을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유신》독재미화에 미쳐날뛰였다. 피뢰역도가 각계의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강행추진한 력사교과서 《국정화》는 본질에 있어서 《유신》독재자의 죄악을 가리우고 그에 의해 빚어진 친미, 친일의 더러운 력사를 찬미하기 위한 술책이였다. 피뢰역도의 망동으로 남조선에서 《유신》독재가 되살아나는 속에 인민들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울분과 고통속에 몸부림쳤다. 그러니 그들이 어찌 항거의 초불을 들지 않을수 있으며 《박근혜탄핵》을 웨치지 않을수 있겠는가.

무지무능하고 부화방탕한 놀음밖에 모르는 박근혜역도는 집권후 민심을 기만하기 위해 내들었던 공약들을 서슬퍼렇지화하고 부정부패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민생은 날로 도탄에 빠져들었으나 박근혜역도의 관심은 온통 《대통령》권한을 휘둘러 제년의 사치와 방탕, 부귀영화를 위한 돈낭카리를 쌓는데만 쏠리였다. 걸핏하면 장, 차관들을 모아놓고 회의도 하고 연설놀음도 벌렸지만 그것은 따져놓고보면 인민들의 고혈을 더욱 악착스럽게 짜내여 제배를 불리기 위한 한갖 사기극에 불과했다.

《불통 1인자》로 락인된 박근혜역도는 고위직들에 자기의 측근들을 들여앉히고 독재통치에 방해가 되는자들은 가차없이 목을 떼버리였다. 한편 부정축재한 자금들을 관리할 심산으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라는것을 만들어낸 역도는 《정부》예산을 떼먹고 재벌들로부터 숱한 돈을 긁어내는 등 온갖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막대한 부를 긁어모았다.

박근혜역도의 돈주머니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수록 남조선경제는 더욱 파국에 처하였으며 그 첫째가는 희생자는 남조선인민들이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길거리를 방황하고 삶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포부로 충만되여야 할 20대, 30대의 청년들이 삶자체를 포기하는 《삶포세대》로 전락된것은 무능무능한 박근혜역도의 반역통치가 빚어낸것이다.

침몰되여가는 《세월》호에서 수백명의 어린 학생들이 애타게 구원을 요청하던 그때 청와대안방에 들어박혀 다 늙어빠진 상판의 주름을 퍼겠다고 7시간동안이나 희롱세월하고도 눈섭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마저 탄압의 대상으로 삼은 천하의 평협한, 생존권을 요구하여 평화적시위에 나선 인민들을 대상으로 물대포를 마구 쏘아대여 고령의 한 농민을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극악무도한 살인마들인 인민들이 과연 용서하자고 하겠는가.

박근혜의 비참한 종말은 사상 류례없는 반인민적악정에 분노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이 안아온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누가 시키지도 추동하지도 않았지만 스스로 초불을 들고 투쟁의 광장에 나섰다. 그들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찾기 위한 길이 박근혜《정권》을 끝장내는데 있다는것을 피눈물나는 생활을 통하여 절감하였다. 하기에 수개월이라는 장기간의 투쟁끝에 가증스러운 악귀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감옥에 처넣고야말았던것이다.

인민을 등진 반역아가 파직당하고 쇠고랑을 찬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것은 누구의 《배후조종》이나 《정치공작》, 《종북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써고 병든 사회를 끝까지 부지해보려던 피뢰보수패당이 스스로 초래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역도의 손발노릇을 한 피뢰보수패당이 저들스스로의 망동으로 빚어진 현실을 놓고 머무니없이 우리를 걸고들며 《종북세력의 란동》이니, 《친북좌파세력의 음모》니 하고 고아대고있는것은 남조선의 초불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 아닐수 없다.

《종북》소동은 국도의 통치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그것을 우리를 모해하는것으로 수습해보려고 미쳐날뛰여온 피뢰패당의 상투적수법이다.

피뢰들은 막다른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미친듯이 걸고들며 대결기운을 고취하는것으로 출로를 찾아보려 하였다. 력사는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될수록 피뢰통치배들이 각종 반공회극모략사건들을 조작해내고 그에 기초하여 파쑈폭압에 광분한 사실을 수없이 기록하고있다.

현 피뢰집권세력이 《종북》이니 뭐니 하고 열을 올릴수록 모략과 음모에 이골이 난 저들의 추악한 정체만을 더욱 드러내게 될뿐이다.

민심의 버림을 받고 막다른 궁지에 몰린 피뢰보수패당이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종북》소동에 더욱 악을 쓰며 매달리고있지만 소용이 없다. 그것은 물에 빠진자 지푸래기잡는 격의 헛된짓이다.

인민을 등진 반역자들에게는 결코 앞날이 있을수 없다.

피뢰보수패당은 모략적인 《종북》소동을 미친듯이 벌릴수록 그것이 저들의 파멸을 재촉할뿐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라 설 하

남북경제협력기업가들

괴뢰통일부 장관실 점거, 항의롱성 전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19일 남북경협기업 생존권보장을 위한 비상대책본부소속 성원들이 괴뢰통일부 장관실을 점거하고 당국이 남북협력중단으로 입은 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이날 괴뢰통일부 장관 홍용표를 만나 금강산관광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업주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있다고 들이댔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된지 9년째 되도록 《5.24조치》를 넘불처럼 외우면서 관광재개와 남북경제협력을 차단하는데 앞장서온 홍용표는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피해지원대책을 검토하고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발뺌질에 급급하였다.

단체성원들이 피해지원대책과 관련한 대답을 받아내고야말 자세를 보이자 홍용표는 비지땀을 흘리다 못해 일정을 구실로 내빼고말았다.

격분한 남북협력기업가들은 통일부 장관의 사무실을 여러시간동안 점거하고 항의롱성을 벌렸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업지구가동을 중단시킨 괴뢰당국의 《5.24조치》와 같은 동족대결책동으로 남조선기업가들과 인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늘어나 곳곳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격앙되고있다.

북침전쟁연습에 내몰렸던 괴뢰군사병 즉사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15일 경기도 파주의 한 훈련장에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의 련합훈련에 돌아치던 괴뢰육군 24사단소속 땅크가 전복되여 사병 한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미제와 야합하여 동족을 압살하기 위한 북침전쟁연습을 날마다 벌려놓고있는 괴뢰군무호전광들의 불장난소동에 내몰려 개죽음을 당하는 괴뢰군사병들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은 조선의 전략적지위를 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미국의 트럼프행정부가 발족된지 석달정도 된다. 선군조선에 대한 료상을 초보적으로라도 가지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짧은 기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행정부는 우리에 대한 아무런 파악도 없이 비대한 미국의 힘만 믿고 우리 공화국과 한사코 대결해보겠다고 어리석게 날뛰고있다.

현 미행정부는 지난 20여년동안의 조미대화는 실패로 끝났다고 하면서 마치도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것처럼 떠들어대고있다. 그리고 우리와의 대화에 환상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방면적인 군사, 외교적압박과 강도높은 경제제재의 강화, 남조선에 대한 전술핵무기재배치뿐이니라 일방적인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력사용까지도 시슴지 않을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실지로 그러한 방향에서 미국이 움직이고있다.

지금 남조선과 그 주변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강행하는 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전쟁전야의 살벌한 분위기속에 놓여있다. 이 핵전쟁연습소동에 미국의 숱한 핵전략자산들이 동원되였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의 《수뇌부제거》를 노린 《참수작전》과 핵 및 로케트기지를 없애버리기 위한 《선제타격》작전에 기본을 둔 《특수작전》훈련까지 공공연히 감행하고있다.

미국은 또한 우리에 대한 저들의 외교적압박과 강도높은 경제제재 등에 합세할것을 우리 주변나라들에 강박하고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자체로 우리의 핵억제력강화를 막기 위한 독자적방안을 마련할것이며 현재 그 준비가 되여있다고 위협공갈하고있다.

조선반도정세를 예측불가능한 열핵전쟁의 폭발계선에로 몰아가고있는 트럼프행정부의 무분별한 망동을 놓고 세계의 많은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어처구니없어 혀를 차고있다.

난지 얼마 안되는 햇강아지는 어떤 상대와 마주쳤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덤벙거린다. 햇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는 격언도 그래서 생겨났다.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트럼프행정부가 발족된지 얼마 안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멋모르는 햇강아지처럼 무분별하게 날뛰는데 대해 조선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가지고 올바로 상대해야 한다고 이모저모로 충고와 조언을 주고있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인터네트홈페지에 게재한 조선과 진정한 대화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력사적으로 조미협상들에 따른 합의들을 파기한것은 바로 미국이라고 까밝혔다.

《워싱톤 포스트》가 상기시킨 기회에 조미합의들을 파기시킨 책임문제를 다시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조선반도가 핵전쟁발발직전에 이르렀던 1994년에 력사적인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였다. 당시 안도의 숨을 내쉰 세계는 조미기본합의문이 성과적으로 리행되고 조미관계가 개선됨으로써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항구적으로 보장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합의문은 제대로 리행되지 못하였다.

바로 미국이 조미기본합의문을 헌신짝 내던지듯 하였던것이다.

당시 우리는 합의문에 따라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을 동결하고 플루토니움생산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에게 2003년까지 총 200만kW능력의 경수로발전소들을 제공하며 정치 및 경제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공약한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다.

결국 2003년에 와서 조미기본합의문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휴지장이 되고말았다.

2005년 9월 19일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이 파기된것도 미국때문이다. 이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은 자주권존중과 평화적공존이며 리행원칙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다. 공동성명이 제대로 리행되지면 성명에 언급된대로 신뢰조성의 물질적기초인 미국의 경수로제공과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로의 복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체결이 동시행동으로 맞물려졌어야 했다. 그런데 그해 11월에 우리에게 제공하게 되여있는 경수로의 건설을 완전중단하기로 최종결정하는 비렬한 행위를 함으로써 미국은 9.19공동성명마저 사문화해버렸다.

력사적사실들이 보여주다싶이 조미합의들의 정신을 깨끗이 말살해버린 장본인, 정말로 신의없는 불량배국가, 진짜협잡군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그뿐이 아니다. 미국은 우리와 협상하는 기간에도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핵전쟁연습소동을 해마다 벌려놓으며 우리를 핵으로 씹임없이 위협공갈해왔다. 그에 대처하여 우리는 핵억제력을 보유하는 길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트럼프행정부가 조미대화실패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미는것은 우리와의 대화를 포기하고 제재압박과 군사적대결을 선택한 저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이다.

트럼프행정부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 역시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지난 시기처럼 학상공론으로만 끌나는 대화, 반공화국압살에 도용되는 대화는 백번, 천번 해도 필요없다는것이 우리의 확고한 립장이다.

트럼프행정부가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에 제동을 걸고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해 초강도제재나, 선제타격이니 뭐니 하고 떠들지만 그것 역시 조선에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것이 세계언론들의 주장이다.

우선 제재문제이다.

중국 심천위성TV방송과 홍콩 봉황위성TV방송은 전문가들과 진행한 대담에서 트럼프행정부가 조선의 핵활동을 가로막기 위해 새로운 초강도제재방안을 작성하고 곧 실행하려 한다고 하면서 명백한것은 트럼프의 행동이 조선반도정세완화에 백해무익하다는것이다. 오바마의 대조선 《전략적인내》정책이 이미 끝났다고 장황하게 주장한 트럼프가 새로운 사고방식을 찾을 대신 지금까지 실패한 낡은 길을 답습하고있으므로 미국의 대조선압살정책은 실패할것이다라고 평하였다.

정치에서는 초하도와 다름바 없는 트럼프와 그의 수하부하들은 이러한 평들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제재를 가하여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한 최초의 집권자는 이미 세상에 가있는 트루먼이다. 우리의 백토,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1950년에 조선반도를 전쟁의 불길속에 빠뜨려놓은 트루먼은 그렇게 한것도 성차지 않아 전쟁기간 수출통제법, 적성국무역법, 무역협정연장법 등을 련속 조작하여 제재압박으로 우리 공화국을 지구상에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획책하였다. 그때부터 력대 미집권자들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작성하면서 제재항목을 빼놓지 않았으며 나날이 증대시켜왔다.

봉쇄국이 창건된 첫 시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민은 언제 한번 미국의 제재밑에서 살아본적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 공화국은 약화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강화발전하였고 승승장구하여왔다.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가증되는 악랄한 제재속에서 남의 힘을 믿고 남의 돈주머니를 쳐다본것이 아니라 제힘을 굳게 믿고 자기의 창조적능력으로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국력을 강화하고 휘황찬란한 미래를 가꾸어나가는 법을 배웠다.

때문에 외신들도 제재대항능력이 강한 조선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것이 우리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미국의 제재책동은 적대행위의 단계를 벗어나 전면전쟁을 의미하는것으로 되고있다. 미국은 불법비법의 《제재결의》들을 수없이 조작해내고 그 리행을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강요하는 한편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빼앗기 위한 단독제재놀음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지난 3월 29일 하루동안에만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결의》를 3건이나 채택한것은 미국의 대조선제재압살책동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침략의 정의에 관한 런던조약과 유엔총회 제29차회의 결의 《침략에 관한 정의》에는 평화적인 시기에 주권국가에 대한 봉쇄형의 제재는 침략행위로, 비법으로 된다고 규제되여있다.

적대세력의 침략에 정의의 성전으로 대답하는것은 주권국가의 정정당당한 권리이다. 트럼프행정부는 우리의 이 의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다음은 군사력사용문제이다.

미국카리익센터 국방연구소 소장 해리 제이. 카지아니스와 전 미국무성 차관보 로버트 엘. 갈루치를 비롯한 전문가들, 로씨야의 스푸트니크방송을 비롯한 여러 나라 언론들은 조선은 이라크와 달리 미국을 보복할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은 6.25전쟁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공습에 대비한 지하방공호기술을 엄청나게 발전시켜왔다는것, 다음으로 지휘부 또는 통신기지공격에 대비하여 예비지휘체계를 구축해놓았다는것, 또한 새형의 고체연료로케트에 의한 선제공격준비뿐이니라 미국의 임의의 공격에 대응한 준비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 있다는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조선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승리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전쟁이 일어나면 남조선은 붕괴되고 일본도 무사치 못하게 되며 나아가서 제2차 세계대전후 초대국으로 자처해온 미국의 모든 꿈이 한순간에 끝장날것이라고 충고해주었다. 그들은 트럼프행정부가 대조선정책작성에서 조선의 군사적위협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데 치중할것이 아니라 끔찍한 참사를 막는데 유리한 환경마련에 관심을 돌려야 할것이라고 조언까지 주었다.

트럼프행정부가 이러한 충고와 조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것은 그들자체의 판단과 결심에 관한 문제이다.

하지만 첫째도 둘째도 명심해야 할것은 미국이 자력자강을 위대한 동력으로 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동방의 핵강국, 필승불패의 선군조선과 대결하고있다는것이다.

조미관계가 1950년대 조선전쟁시기에는 보병총과 원자탄과의 대결구도였다면 오늘에 와서는 핵과 핵의 대결구도로 근본적으로 바뀌여졌다.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들씌운 혜참화가 이제는 남의 불행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와 대결하려면 미국본토전체가 히로시마, 나가사끼에 비할바 못되는 상상할수 없는 핵참화를 입을수 있다는것을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

선제타격은 더이상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최근 트럼프행정부는 수리아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민간인들을 학살하였다는 구실을 걸고 수리아정부군 공군기지에 수십기의 미싸일들을 불의에 선제적으로 퍼부었다. 내전으로 쇠약해진 수리아에 대한 침략행위를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서도 트럼프행정부는 민충이 쑥대에 올라간것 같이 기고만장하여 마치도 다른 나라들에도 버릇을 가르칠것처럼 으르렁거리고있다.

때를 같이하여 일각에서는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이번 군사적공격이 우리를 노린 그 무슨 《경고성》행동이라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그런 무모한 망동에 놀랄 우리가 아니다.

21세기에 들어와 집권한 부시행정부가 《반테로전》을 떠들며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을 련거퍼 벌려놓고는 오만방자하게도 다음번 차례는 조선이라고 위협공갈하였었다. 그에 대처하여 우리는 핵억제력을 보유하였으며 그에 기가 질려 부시행정부는 끝내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였다.

트럼프행정부는 수리아에 미싸일 몇십기 쏟아부은것을 놓고 우쭐해할 필요가 없다. 수리아는 비핵국가이며 미국은 핵보유국이다. 미국이 약자를 치는것은 자기가 강자가 못된다는것을 드러낼뿐이다.

우리는 대결과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미국이 요구한다면 그에 기꺼이 상대해줄수 있다.

미국이 우리를 선제타격하려면 제국주의우두머리의 지위도, 딸라제국의 운명도, 미국민의 생존권도 모두 도박밑천으로 내대고 해야 한다. 트럼프행정부는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명주국으로 우뚝 올라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리 경 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한사코 짓밟으려는 미국의 광란적인 핵전쟁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는 극도로 험악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최근 트럼프행정부의 당국자들은 우리를 힘으로 어째보겠다는 망발들을 련일 늘어놓으면서 핵항공모함타격단들을 줄줄이 조선반도수역에 끌어들이려 하는 한편 누구를 통한 문제해결을 떠들며 분주랑을 피워대고있다.

미국의 위협과 공갈에 놀랄 우리가 아니다.

우리의 백두산혁명강군은 미국의 책동을 예의주시하고있으며 즉시적으로 대응할 만단의 준비를 끝내고 명령만을 기다리고있다.

미국이 우리와의 대결을 바란다면 끝까지 가보자는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우리의 초강경대응에는 지상, 해상, 수중, 공중기동을 동반한 불의적인 선제타격을 포함한 여러가지 방식들이 들어있으며 미국이 걸어오는 도발의 종류와 수위에 맞는 우리 식의 강경대응이 그 즉시에 따라서게 될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군대가 명백히 밝히였다.

세계는 이번에 미국이 힘으로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는것을 똑똑히 목격하게 될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정화애호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 정화를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피하려 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미국이 가지고있는 그 어떤 선택과 수단에도 다 대응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핵강국이며 미국의 그 어떤 선택도 피하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허위협으로부터 우리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막강한 핵을 보유한 이상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핵전쟁에는 우리 식의 핵타격전으로 주저없이 맞대응할것이며 미제와의 관가리결전에서 반드시 승자가 될것이다.

주체106(2017)년 4월 21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오스트랄리아외무상이 우리를 악랄하게 걸고든것과 관련하여 2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얼마전 오스트랄리아외무상이 어느 한 방송프로에 나서서 조선이 지역과 세계정화를 크게 위협하고있다느니, 모든 선택안이 락상우에 있다는 미행정부의 대조선정책을 지지한다느니 뭐니 하며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들을 걸고드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오스트랄리아외무상의 망발은 조선반도에 조성되고있는 위험천만한 사태의 근원인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을 비호두둔하고 미국을 무분별한 군사적모험에로 부추기는 반평화적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워싱톤에 구름이 끼면 캔베라에서는 우산을 쓰고다닌다고 할정도로 미국의 정책에 맹목적으로 적극 추종하는것이 오스트랄리아의 현 정부이다.

이러한 정부의 외무상의 입에서 옳은 소리가 나올리 만무하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외무상이라면 사태의 본질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이라도 가지고 입을 놀려야 할것이다.

조선반도정세가 긴장격화의 악순환에 빠져 일촉즉발의 위기상태로 치닫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과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때문이다.

오스트랄리아가 지금처럼 미국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계속 추종하면서 미국상전의 돌격대로 나선다면 우리 전략군의 핵조준경안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미는 자멸행위로 될뿐이다.

오스트랄리아외무상은 무턱대고 미국에 아부부터 하기 전에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후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라는것을 심중히 따져보는것이 좋을것이다.

우 리 나 라 외 무 성 비 망 록

유엔총회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식문건으로 배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이 조선반도정세를 열핵전쟁의 폭발상태에 처하게 한 미국의 책임과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우리의 불가피한 자위적선택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발표한 비망록이 20일 유엔총회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식문건 A/71/866-S/2017/303호로 배포되였다.

이 란 에 서

군대절에 즈음하여 열병식 진행

이란의 수도에서 군대절에 즈음하여 18일 열병식이 진행되였다.

이 나라 대통령 하싼 루하니와 정부성원들, 이슬람교혁명근위대의 고위지휘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열병식에서 연설한 대통령은 이란무장력이 저들의 음모책동에 고도의 경각성을 유지하면서 전쟁억제력을 계속 강화해나가야 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란무장력은 그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지만 저들의 있을수 있는 침략책동에 단호히 대응해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어 각 군종, 병종 종대들의 열병행진이 진행되였으며 국내산 장거리반항공미싸일 《사에드-3》을 비롯한 각종 미싸일과 땅크, 장갑차, 무인기, 전투기, 반항공체계들과 기타 무장장비들이 공개되였다.

이날 나라의 남부와 북부수역에서는 이란해군의 대규모적인 무력시위가 있었다.

요 르 단 의 력 사 유 적

대규모방화사건

프랑스북부 뎅께르끄부근의 한 피난민촌에서 최근 대규모적인 방화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나라 당국은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하면서 그로 하여 피난민들이 쓰고살던 300여채의 림시천들이 불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지에 나앉았다고 밝혔다.

해당 피난민촌에는 1 600명의 피난민이 생활하고있었지만 방화사건후 1 000여명의 피난민들의 행방을 알수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도발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대답해나설것이다

남조선과 그 주변이 핵전쟁미치광이들의 란무장으로 되였다. 이제는 정상적인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에 분별을 잃은 미호전광들이 위일을 감당해낼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핵전략자산들을 총동원하면서 히스테리적인 광기를 부리고있다. 엄마전에도 핵전략폭격기 《B-1B》편대들을 련이어 남조선상공에 들이밀어 우리의 중요대상물들을 불의에 선제타격하기 위한 핵폭탄투하훈련을 감행하였다. 그런가 하면 핵항공모함 《칼빈손》호와 핵잠수함 《플럼부스》호, 《알래산드리아》호, 이지스구축함 등을 조선반도주변수역에 전개해놓고 함재기와 순항미싸일들로 우리를 기습타격하는 훈련을 광란적으로 벌렸다.

지금까지 미국이 북침전쟁연습에 핵전략자산들을 동원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이번처럼 공중과 해상, 수중전략무기들을 거의 동시에 들이민적은 일찌기 없었다. 미호전광들은 앞으로 핵전략폭격기 《B-2A》, 《B-52H》와 스텔스전투기 《F-22A》도 남조선에 들이밀어 선제타격강도를 높이겠다고 고아대고있다.

미국이 이제는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아마 핵전략폭격기와 핵항공모함같은것들로 우리를 놀래우고 그 무엇을 이루어보려 하는것 같은데 그따위 허세에 놀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미국은 우리를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고있다. 지금 우리의 힘은 원자탄을 휘두르며 날뛰던 미제와 보병총을 잡고 맞서싸우던 지난 1950년대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 행성의 절대병기로 불리우는 수소탄까지 보유한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른 우리 공화국은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다 상대해줄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있다.

미국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종식되였다.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은 더이상 위협과 공포의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미국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과 공포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악의 소굴인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며 시시각각으로 아메리카제국의 목을 조이고있다.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다.

가소로운것은 미국이 추종세력들까지 전쟁불장난소동에 끌어들여 우리를 압살하기 위한 도박판을 벌려놓고 최후발악하고있는것이다. 미일남조선, 미일, 미국남조선사이에 각종 합동군사연습이 꼬리를 물고 감행되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이미 제주도부근에서는 미일남조선구축함들과 직승기, 해상초계기들이 우리의 전략잠수함을 탐색 및 추적, 타격하는 연습에 열을 올리였으며 일본은 제땅을 미국의 작전기지, 병참기지로 제공하였다. 일본해상 《자위대》는 미핵항공모함 《칼빈손》호와 함께 우리를 선제타격하기 위한 공동훈련까지 벌렸다. 괌도의 앤더슨기지에서 리륙한 미핵전략폭격기 《B-1B》는 일본항공 《자위대》전투기 《F-15J》와 련합훈련을 하고 련이어 괴뢰군전투기들과 공중타격연습을 감행하였다. 남조선의 포항지역에서는 미국남조선 《련합사령부》의 주도하에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전쟁물자를 신속히 보급하기 위한 연습이 진행되였다. 미국은 여기에 고도의 신속기동성을 가지고있다고 하는 스트라이커장갑려단도 참가시켰다.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능력을 높이는것과 동시에 괴뢰들의 북침열기를 돋구어주자는것이다.

남조선과 그 주변은 말그대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북침핵전쟁연습마당으로 되였다. 미국은 일본, 괴뢰들과의 련합된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삼켜보려 하고있다.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도발을 걸면서 조선반도정세를 폭발전야에로 몰아가고있다.

미국이 추종세력들과 함께 핵전략자산들과 특수부대들까지 총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침공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각종 합동군사연습에 광분하고있는것은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니다.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선전포고나 같다.

미국의 반공화국적대행위는 단순한 위협공갈단계를 넘어 무모한 행동단계에 들어섰다.

우리는 미국의 강도적인 대조선침략야망이 극도에 달하였다는것이 명백해진 이상 그것을 지켜보고만 있을수 없다. 말로 하면 때는 지났다. 미천대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이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귀등으로 흘려보내고 감히 우리와 맞서겠다고 무분별하게 날뛰는 원쑤들은 오직 정의의 핵몽둥이로 제압하여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인 군사적대응조치는 불가피하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식의 선제타격이다. 이미 우리는 미국이 강행하고있는 합동군사연습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가장 로골적인 핵전쟁도발로 간주된 이상 그에 따른 군사적대응조치는 보다 선제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타격전으로 될것이라는것을 선언하였다.

만일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망각하고 도발적인 망동을 부리며 우리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 천만군민은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을 개시할것이다.

우리의 조국통일대전은 단순히 공화국남반부를 해방하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악의 소굴 미국을 가장 신속하고 가장 정확한 타격으로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눈도 없게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림으로써 지구상에서 전쟁의 근원을 완전히 들어내는것으로 종결되게 될것이다.

우리의 위력한 선제타격수단들은 공화국남반부의 작전지대안의 군사대상물들과 미국의 반공화국침략책동에 동조하는 추종국가의 관련시설들, 태평양작전지대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은 물론 미국본토까지도 조준경안에 잡아넣고 순간에 초토화해버릴수 있게 항시적인 발사대기상태에 있다.

미국이 우리를 먹자고 칼을 물고 달려드는 조건에서 우리는 그 무엇에도 구속될것이 없다.

우리 공화국을 노린 침략전쟁책동과 도발에 우리 식의 선제타격과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대답하는것은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우리의 합법적권리이다.

리 학 남

세계적규탄을 자아내는 불법무도한 만행

최근 미국이 수리아의 홈스도에 있는 한 공군기지를 목표로 미싸일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로 하여 공군기지와 그 부근의 마을에서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군용기들과 격납고 등이 파괴되였다. 미국은 이번 군사적공격에 대해 화학무기를 리용하여 민간인들을 살해한 수리아정부군을 보복한것이라고 떠벌이고있다.

외신들이 전한데 의하면 얼마전 수리아의 반항부세력이 통제하고있는 이들리브도에서는 원인모를 독가스에 의해 수십명의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수백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은 무턱대고 수리아정부군이 화학무기로 민간인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고아대면서 유엔무대에까지 이 문제를 상정시켰다.

수리아는 서방의 파렴치한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다만 자기 나라 공군이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탄약을 생산하던 테로분자들의 공장을 파괴하기 위한 공습작전을 단행하였을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원래 일이 제대로 되자면 벌어진 사태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진상을 정확히 파악한데 기초하여 해당한 결론을 내리는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 모든것을 무시하고 수리아를 한사코 범죄자로 몰아붙였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만약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수리아의 화학무기공격사건을 그대로 묵인한다면 미국은 단독으로 행동할것이라고 뇌까렸었다. 이것이 그대로 수리아에 대한 로골적인 군사적공격으로 이어지게 되였다.

초보적인 원칙과 국제법마저 란폭하게 유린하며 감행된 미국의 불법무도한 군사적망동은 명백히 주권국가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침략행위이다.

베네수엘라외무성은 공보를 발표하여 미국의 군사적공격이 수리아의 자주권과 령토완정, 자결권에 대한 침략인 동시에 유엔헌장을 유린하는 내정간섭행위라고 단죄하였다.

볼리비아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사전허용도 없이 감행된 미국의 이번 공격행위가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하면서 유엔을 제쳐놓고 제멋대로 판결하고 교형리처럼 행동하고있는데 대해 엄중히 문제시하였다.

로씨야의 고위인물들은 수리아의 현 상황이 미국이 추종세력들과 함께 《대량살륙무기보유》와 《인권유린》을 운운하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승인도 없이 이라크를 군사적으로 침공하였던 2003년의 사태를 상기시켜주고있다고 지적하고 국제법을 무시한 세계헌병노릇은 미국에 후과를 초래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란은 이번에 트럼프행정부스스로가 테로분자들의 지원자라는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놓았다고 조소하면서 이것은 《이슬람교국가》를 산생시키고 그것을 지원하던 이전 미국대통령 오바마의 정책과 전혀 다른바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밖에도 적지 않은 나라들의 정계와 사회계, 언론계는 물론이고 미국내에서까지 공공연한 침략행위에 대한 지주와 규탄이 비발치듯 쏟아져나오고있다. 수리아의 해당 지역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진행할것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유엔성원국을 반대하여 벌린 미국의 침략행위를 강하게 문제시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울려나오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벤벤스럽게도 자기의 침략행위가 정정당당한 듯이 횡설수설하고있다.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자기가 미국의 사활적인 국가안보와 대외정책적리익에 부합되게 행동하였으며 앞으로도 자국의 리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것이라고 뇌까렸다.

횡포한 성격을 띤 미국의 불법무도한 만행으로 하여 지금 수리아에서는 지역정세가 복잡해지면서 긴장은 더욱 격화되고있다. 그러나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기어이 이룩하고야 말려는 수리아군대와 인민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수리아대통령사무소는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이번 공격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정복하며 세계를 제패하려는 력대 미행정부들의 정책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유력한 증거로 된다, 그러한 비렬한 행위는 테로분자들을 소탕하려는 수리아의 결심을 더욱 굳혀주고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수리아정부군은 최단시일안에 나라의 반항공체계를 더욱 정비보강하는 등 미국의 있을수 있는 도발행위들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수리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성원도 더욱 강화되고있다. 수리아에 있는 로씨야-이란합동작전실은 수리아를 공격한 미국의 행위는 붉은 선을 넘어선것으로 된다, 이 시각부터 우리들은 그 어느 일방의 침략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나갈것이다, 수리아정부군에 대한 지원은 보다 강화될것이다라는 강경립장을 천명하였다.

제반 사실들은 미국이야말로 저들의 정치적목적을 위해서라면 날조와 모략으로 흑백을 전도하며 주권국가에 대한 무력사용도 시슴지 않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 평화의 교살자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불법무도한 침략행위를 죽로 단죄하며 그것을 더이상 용납치 않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되고있다.

본사기자 안 철 권

단식투쟁에 진입

이스라엘감옥들에 갇혀있는 팔레스티나인수감자들이 17일 유태복고주의자들의 학대에 항의하여 단식투쟁에 진입하였다.

여기에는 약 1 500명의 수감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면회보장과 주기적인 의료검진 등 수감자들에게 초보적인 권리를 보장할데 관한 10여개의 항목으로 된 요구조건을 들이대면서 이스라엘당국이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투쟁을 계속 벌려나갈 립장을 밝혔다.

후텐마미공군기지의 조기반환을 요구

일본 오끼나와현 지사가 최근 담화를 발표하여 후텐마미공군기지로 리용된 부지를 조기에 반환할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그는 현재까지 미군기지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있는것은 현내이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당국의 그릇된 태도에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정부가 나고시 헤노꼬에로의 이설을 조건으로 삼지 말고 시급히 기지부지를 오끼나와현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피난민수 증가

이라크에서 피난민수가 날을 따라 증가하고있다.

17일 유엔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이 나라의 모술시에서 피난민들의 수가 거의 50만명에 달하고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ㄱ-71063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